

2021

2021.
01.12(화)

13:30~
16:00

2021.
01.21(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포럼

2021

2021.
01.12(화)

13:30~
16:00

2021.
01.21(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포럼

2021

2021. 01.12(화) 13:30~16:00
2021. 01.21(목) 14:00~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1차

2021.
01.12(화)

13:30~
16:00

사회적 금융 영역별 현황과 과제

사회 :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임팩트투자 펀드결성 추이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지역의 임팩트투자펀드 수요, 결성 추이 및 운용 현황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의 현황과 과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플랫폼 기반 시민펀딩 현황, 발전 방향 (P2P, 크라우드펀딩)
성진경, 오마이컴퍼니 대표

신용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이사장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기반, 개선 과제
문성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추진 현황과 방향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토론 및 마무리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임팩트 투자 펀드결성 추이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임팩트 투자 펀드 현황

20210112 | IMPACT SQUARE

국내 사회적 금융의 외연 확대

[임팩트 투자 펀드 2020년 가을 기준]

	펀드명	결성총액	운용사
1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1호	150	비하이
2	디쓰리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1~2호	450	디쓰리
3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헨스 펀드	250	마그나
4	KB 소셜임팩트펀드	150	KB
5	대성 따뜻한 임팩트 투자조합	150	대성
6	미래 ESV 개인투자조합 제1호	125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7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	188	쿨리지
8	미시간글로벌소셜임팩트투자조합	125	미시간
9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145	다담
10	코메스2018-2 소셜임팩트투자조합	100	코메스
11	엘로우독같이하다투자조합	202	엘로우독
12	IBK투자증권 사회적기업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110	IBK
13	크레비스임팩트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200	크레비스
14	더웰스 코리아 임팩트펀드 투자조합	250	더웰스
15	HGI-시몬느 소셜임팩트 펀드	100	HGI
17	신한AIM사회적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200	신한
18	와디즈 유니크-벨류 사모투자합자회사	57.5	와디즈
19	아크 임팩트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60	아크
20	엘로우독-산은-SK	500	엘로우독
21	소셜임팩트-비하이 (결성중)	150	비하이
22	소셜임팩트-쿨리지 (결성중)	150	쿨리지
23	디딤돌 임팩트스퀘어 (결성중)	58	임팩트스퀘어
24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투자조합 1~2호	30	MYSC
25	CCVC소셜벤처투자조합	40	쿨리지
26	미래에셋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1~2호	82	미래에셋
27	포스텍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60	포스텍
28	피씨씨 사회적기업 2호 펀드	108	포스텍
29	소셜벤처 피크닉 1호 투자조합	38	소풍
30	행복나눔재단 소셜벤처투자	99	행복나눔재단
		4527.5	

- 2020년 말 기준 누적 임팩트 펀드 약 5,500억원

- 2019~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임팩트 펀드 결성 약 1천억

사회적 경제에 공급되는 금융 약 6천억

민간의 미집계 사회적 금융

기타 바이오, 그린뉴딜, 도시재생 등에서 일부 유입

→ 연간 최소 약 7천억 이상의 사회적 금융 유동

법인 유형 분포 (n=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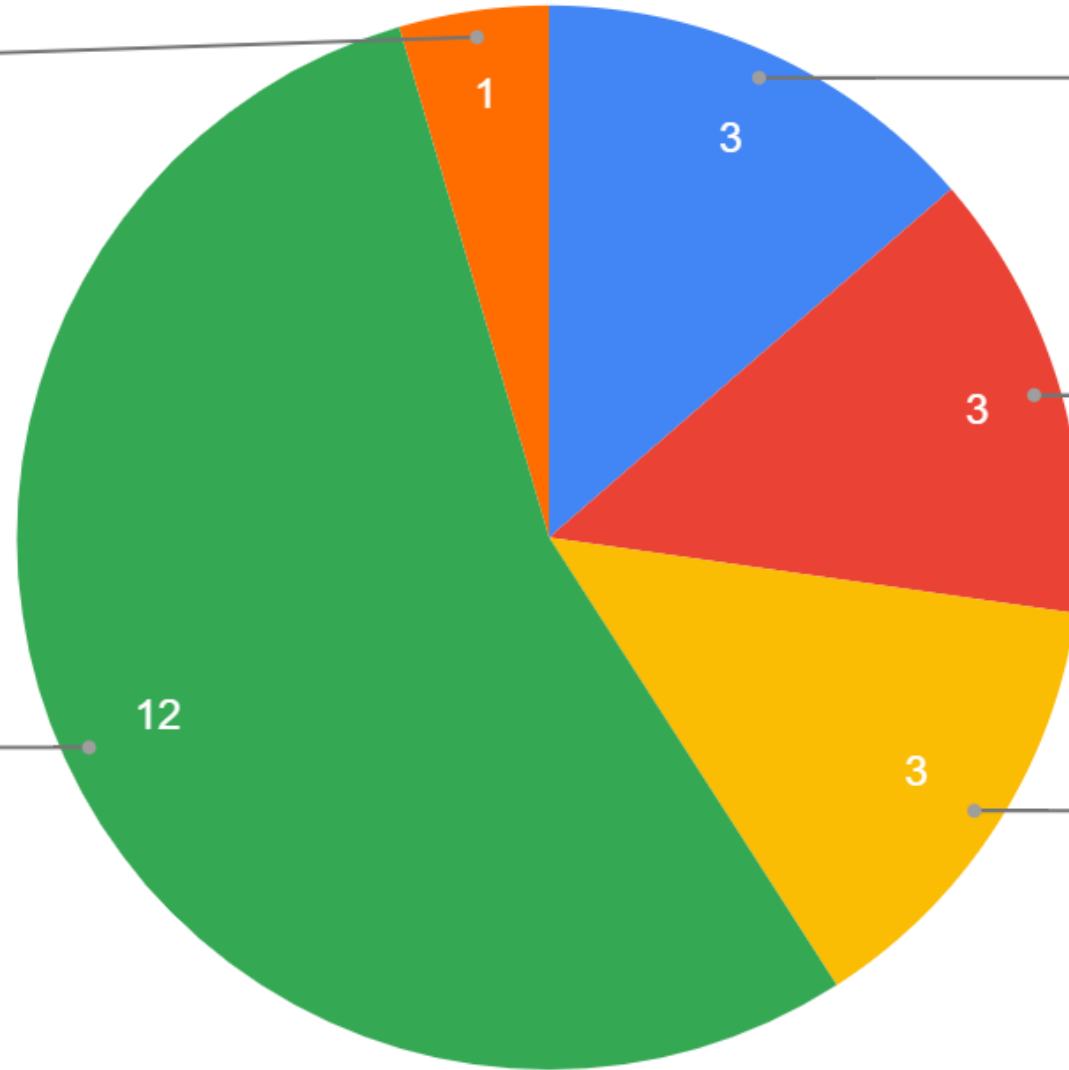
유한책임회사
4.5%

협동조합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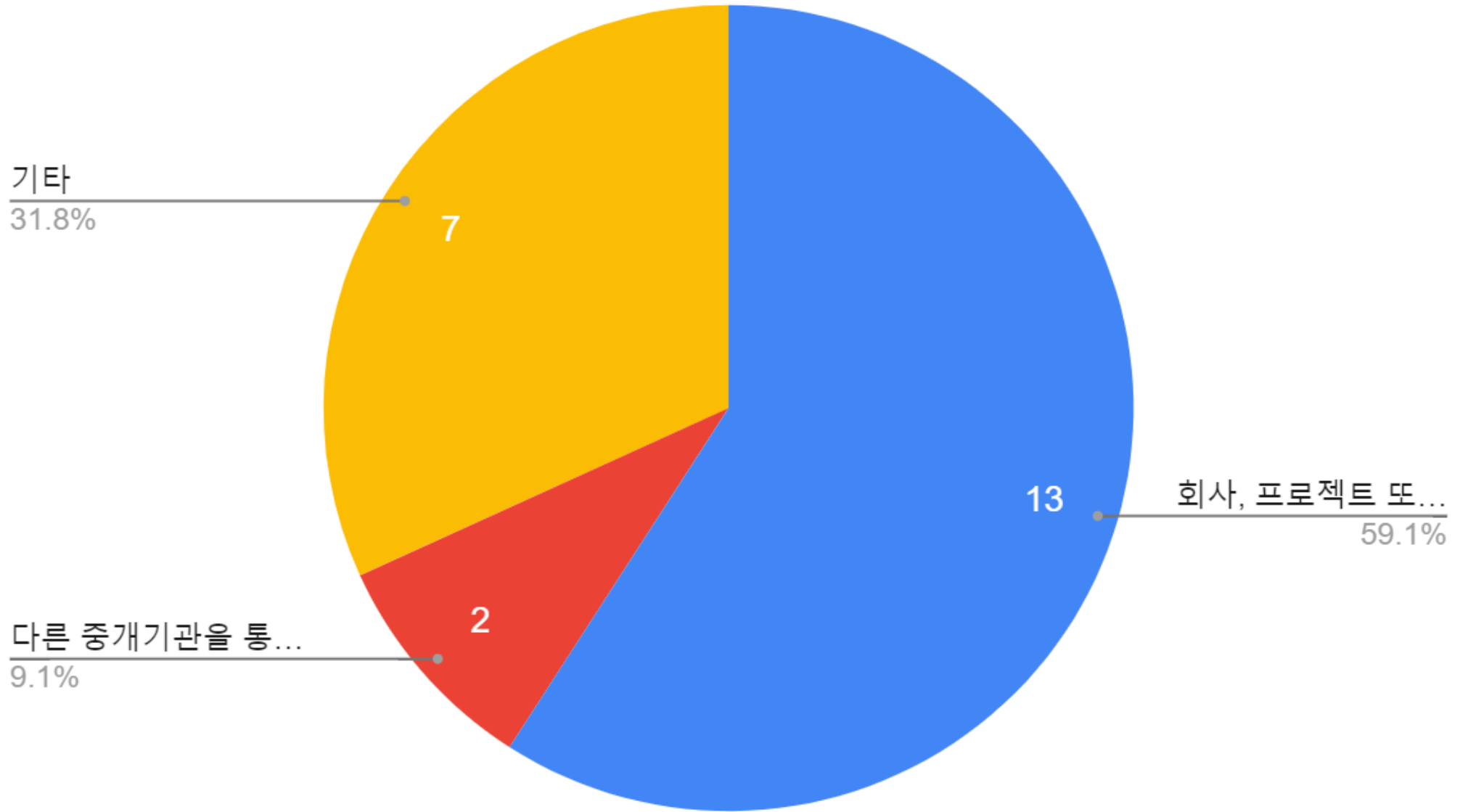
사단법인
13.6%

주식회사
54.5%

재단법인
13.6%



사회적 금융 집행 유형 (n=22)



사회적 금융 운용 자산 규모 (n=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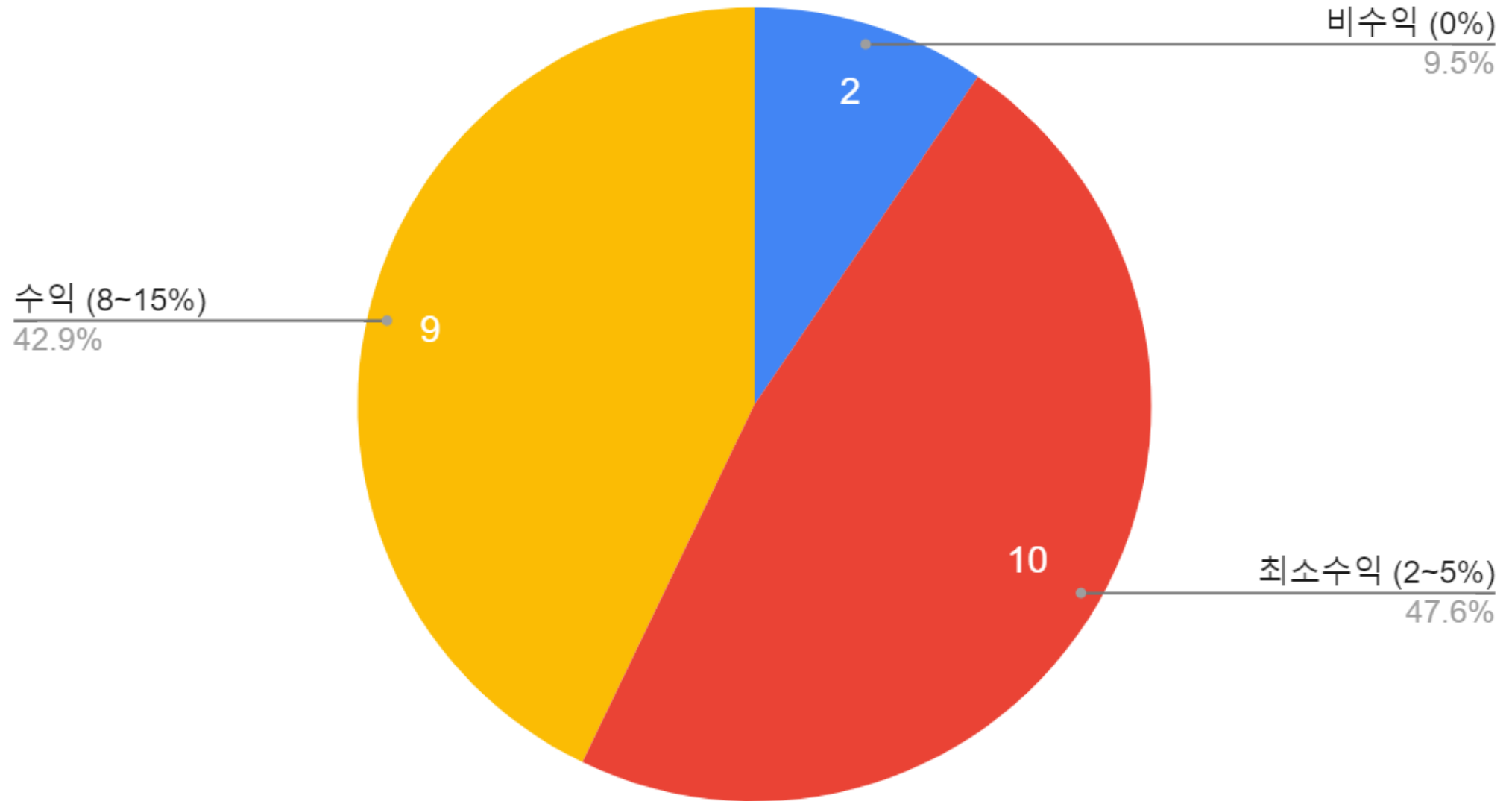
현재 총 운용자산

약 1조 3,12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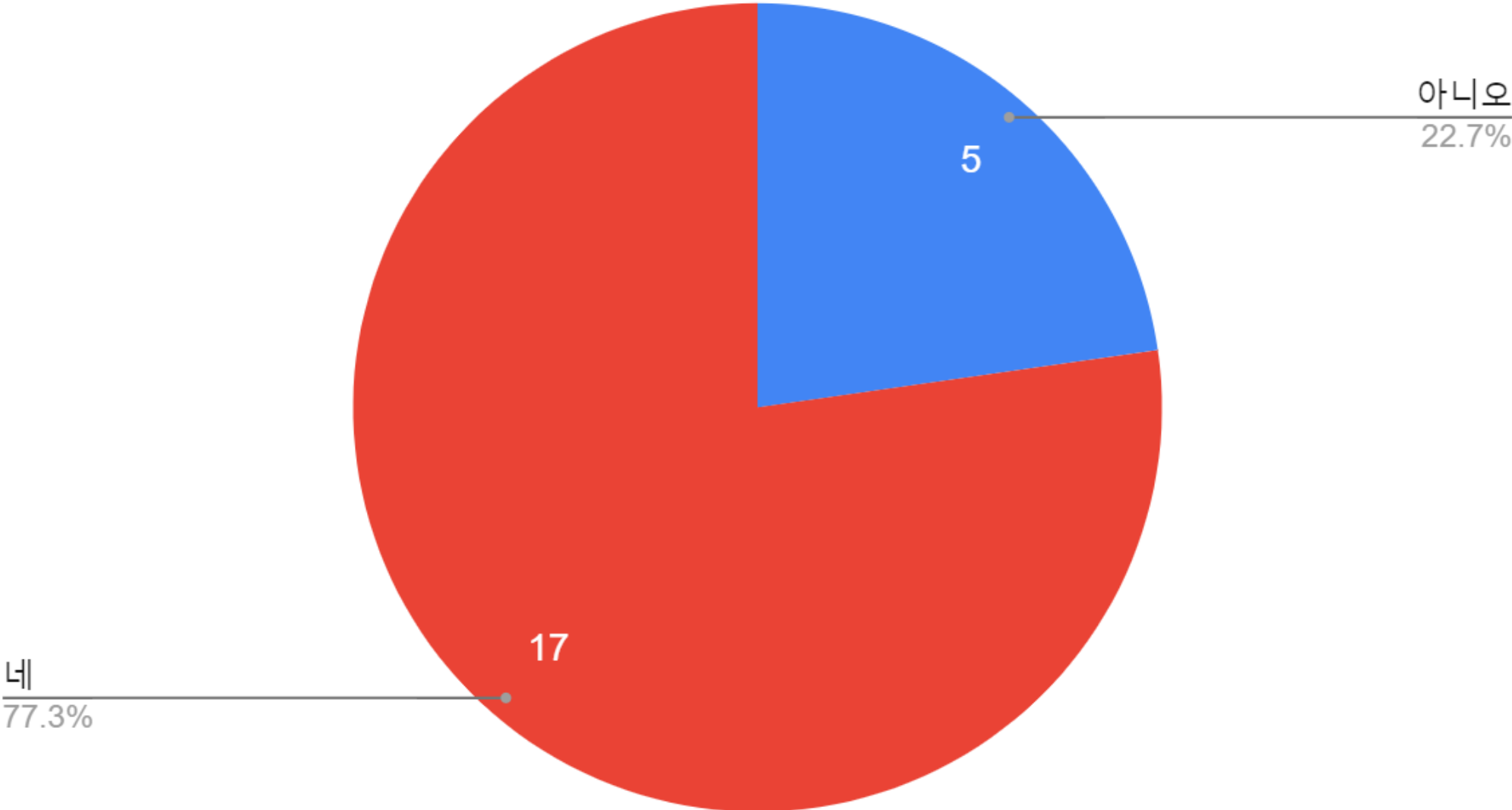
2020년 연간 금융 공급액

약 1,21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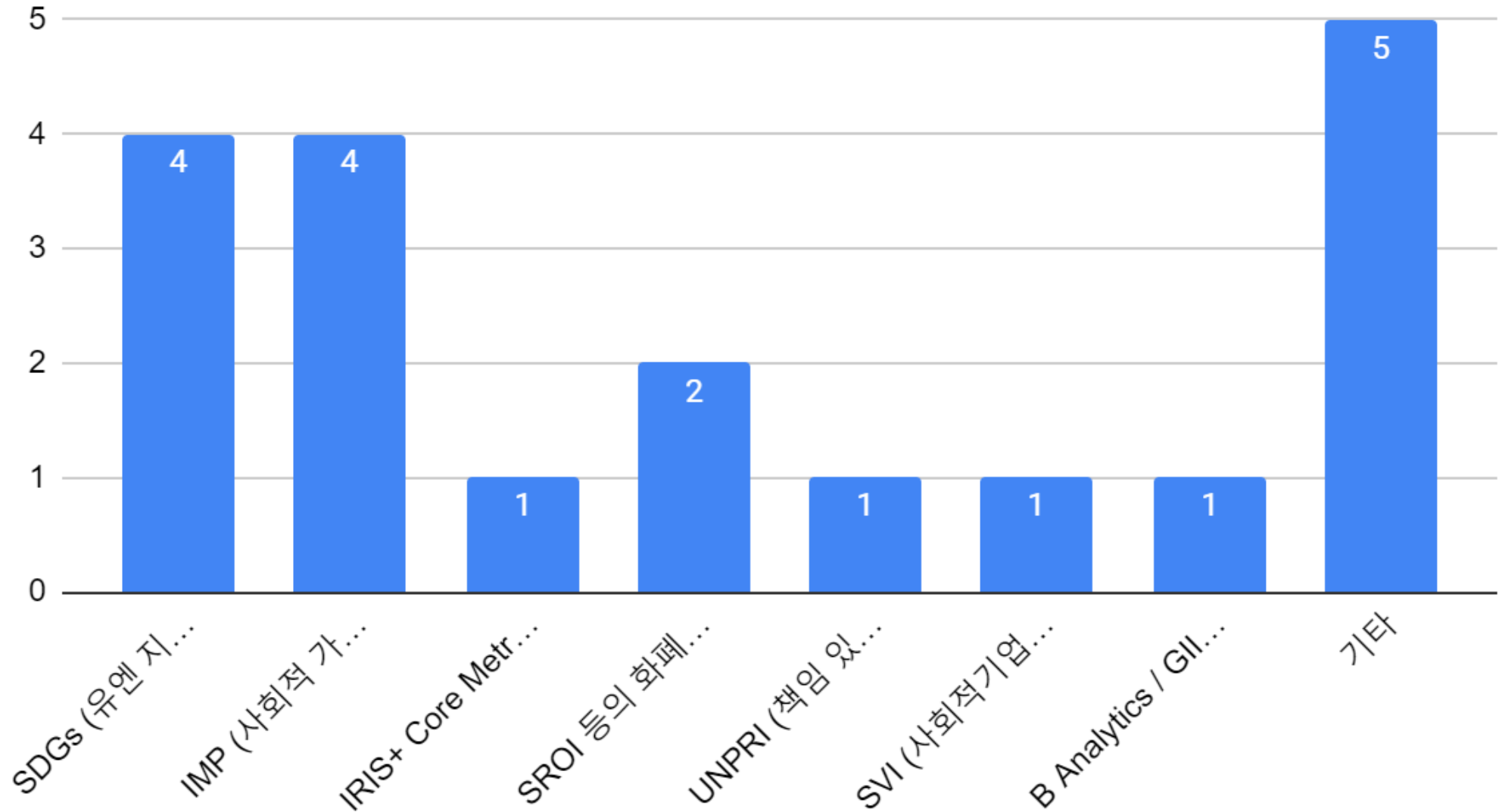
공급 자금의 평균 요구수익률 (n=21)



사후관리를 위한 임팩트 측정여부 (n=22)



임팩트 측정에 활용하는 방법론 (n=19, 중복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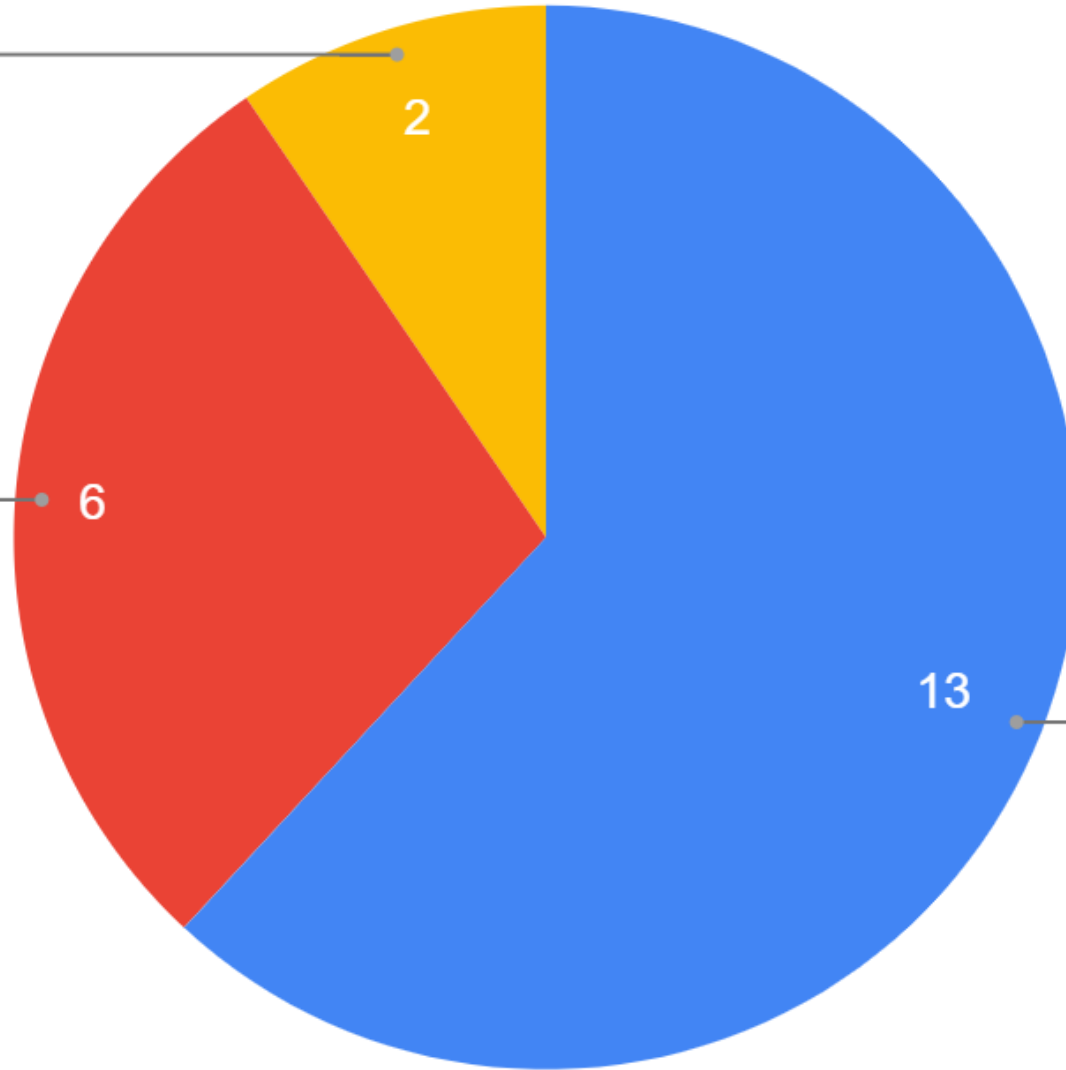


전년도 대비 2021년 자금공급 규모의 변화 예상 (n=21)

10%이상 감소
9.5%

± 10 %이내 유지
28.6%

10%이상 증가
61.9%



향후 5년간 직면할 위기

1위 “**임팩트워싱**”

2위 “**사회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

외연의 성장과 함께 이제 내실도 더 다져지는 2021년이 되기를...

[1] 측정 문화의 정착

[2] 민간 LP 발굴과 초대

[3] 수도권 중심의 투자 탈피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imothydho@impactsquare.com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지역의 임팩트투자펀드 수요, 결성 추이 및 운용 현황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지역의 임팩트투자 펀드 수요, 결성 추이 및 운용 사례

기회요인과 이슈 극복방안의 탐색

김정태
MYSC 대표이사



지역과 임팩트투자의 만남은 자연스럽습니다

≡ 한겨레

연재

임팩트 시대가 온다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에너지, 사용자와 직접 소통할 때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택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합니다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시스템 사고와 경로 요인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원칙을 이해하면 투자는 쉽다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자본의 인내가 가져오는 변화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소셜'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시대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어떤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높을까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과테말라·제주·카카오 잇는 상상력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다시 쓰는 비코프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에어비앤비가 주목한 그 회사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대기업이 소셜벤처를 만날 때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대통령 순방사절단이 된 소셜벤처들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사회적 어벤져스가 온다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소비자의 선택이 곧 임팩트 투자다 / 김정태
- [임팩트 시대가 온다] 임팩트 시대의 새로운 문법 / 김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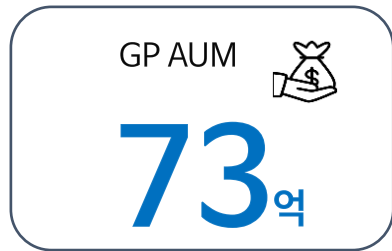
“ 지역을 일종의 혁신의 테스트베드(실험대)로 보고 찾아오는 스타트업(신생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지역은 도시의 후방을 맡거나 원료나 인재의 공급과 같은 역할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탈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지역과 도시 사이에 존재하던 ‘도시 대 지방’이라는 오래된 대척점 구도가 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이라고 불렸던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오히려 독특한 경험과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새로운 상상력을 갖춘, 지역 전성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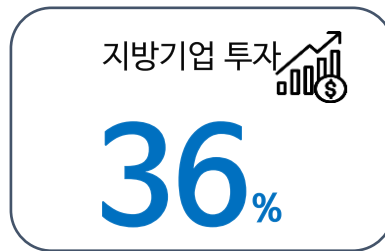
MYSC와 임팩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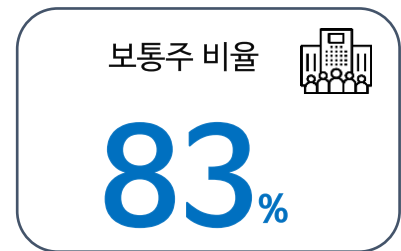
※ 2021년 1월 기준



※ 코리아임팩트펀드/와디즈벤처스펀드/
도시재생펀드 등 3개 펀드



※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



“지역·로컬 투자 관련”

엑스트라마임팩트2호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지방계정)

경남 청년임팩트투자 펀드 (경상남도 지역 주목적)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성동구 지역 주목적)

구분	내용
펀드 규모	20억
GP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LP	한국벤처투자, 사회가치연대기금, 와디즈벤처스 등
특징	수도권 외 지방 소재 기업에 최소 60% 이상 여성 기업 투자비율 10% 이상 등

구분	내용
펀드 규모	22억
CO-GP	MYSC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LP	NH은행, BNK경남은행, 사회가치연대기금, 거제시, 통영시, 센트럴 등
특징	경남 소재 사회적경제/로컬크리에이터 70% 이상, 39세 이하 청년 기업 집중

구분	내용
펀드 규모	20억
CO-GP	MYSC + 유진투자증권
LP	성동구, 행복나눔재단, 삼구INC, 한국콜마, 휴먼큐브, EMC 등
특징	성동구 내 본점 또는 주사업장 등이 있는 소셜벤처 60% 이상 투자

할리케이 (대구)

비건 + 업사이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지역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창출 및 버려진 소재의 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공)



[EVENT] 종이처럼 가벼운 한지가죽 비건 미니백
#HarlieK #할리케이 #SAMI #미니백



MYSC의 지역 임팩트투자

(주)카카오패밀리 (제주)

‘신이 내린 선물’ 카카오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소셜다이닝, 식재료, 체험 &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장



MYSC의 지역 임팩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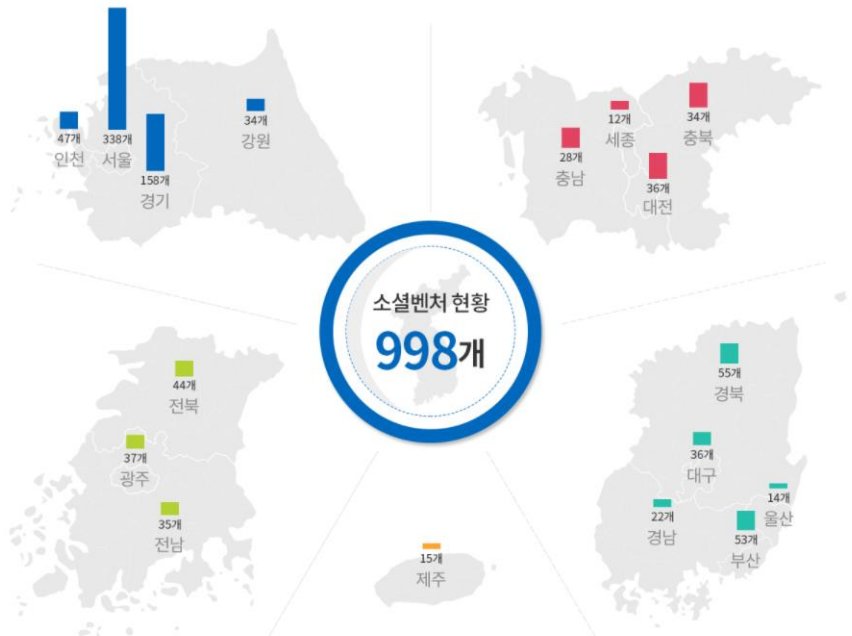
주식회사 해녀의부엌 (제주)

어촌계 유희공간을 개조해 국내 유일의 해녀 공연+해녀와의 만남+다이닝이 결합된 경험 제공



소셜벤처 67%, 인증사회적기업 81%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함
 임팩트투자 공급이 증가하면서 대상에 지역 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 현상

소셜벤처
 약 67%



| 출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2019년)

인증사회적기업
 약 81%



|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년)




SDGs와 ESG 관점의 투자 증가는 지역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환경, 재생에너지, 농업, 해양수산, 관광, 신소재 등 많은 영역은 지역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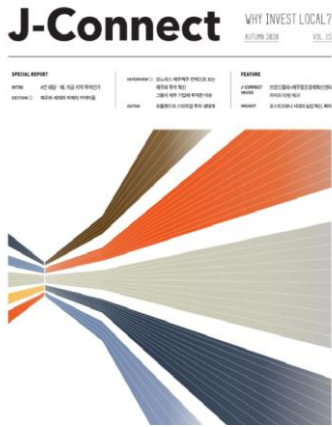
SDGs 17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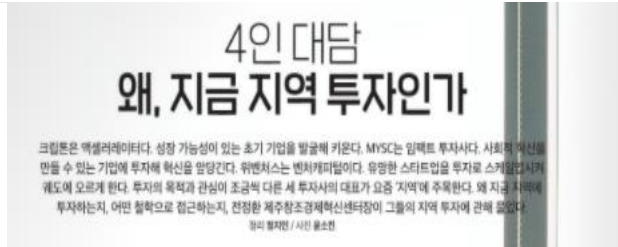
ESG 환경과 사회 이슈

 환경(E)이슈	 사회(S)이슈	 지배구조(G)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대기 및 수질오염 - 생물의 다양성 - 삼림 벌채 - 에너지 효율 - 폐기물 관리 - 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성별 및 다양성 - 직원참여 - 지역사회 관계 - 인권 - 노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 - 감사위원회 구조 - 노물 및 부패 - 임원보상 - 로비 - 정치 기부금 - 내부 고발자 제도

혁신과 새로운 시도, 그러한 시도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이 높은 곳으로 지역의 재발견 '작은 연못 큰 물고기': 현장에서 잦은 혁신을 이룬 기업이 큰 무대에서 성공 가능성 높음



출처: J-CONNECT Vol.15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정태 <다윗과 골리앗: 거인을 이기는 기술>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톱 저널의 논문 저자를 추적했다고 해요. 하버드대 같은 상위권 대학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우세할 것 같지만, 하버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연구자는 상위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상위권 연구자들은 하버드대 중위권 연구자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었어요. 요컨대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보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를 먼저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수도권 경쟁에 치여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에 간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중앙에 모든 자원이 몰렸을 때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일 거예요.



"19세기 프랑스에서 '살롱'은 화가들의 로망이자 전부였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살롱 전시회에 출품해야 비로소 전문 화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피사로, 모네, 르누아르, 세잔 등 인상파 화가들은 번번이 살롱 심사단의 퇴짜를 맞았다. 살롱전은 전통을 고수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결국 기존 질서를 박차고 나와 독자적인 전시회를 열어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인상파가 남긴 교훈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면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보다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지역/로컬 주목적 임팩트투자 펀드: 총 352억

※ 2021년 현재 / 임팩트 지향 기준 / 투자조합 기준

유형(지역)	결성일	GP	LP	펀드명	특징	규모
개인투자조합 (제주)	2018.9	크립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개인투자자 등	크립톤-제주 액셀러레이팅 개인투자조합 1호	임팩트투자를 지향하는 최초의 지역 주목적 투자 펀드(주요 투자처: 제주 상회, 캐치잇플레이 등)	8억
벤처투자조합 (인천)	2019.8	인천테크노파크	애큐온캐피탈, 키움증권, 메리츠 증권증권, 신한BNP파리바자산 운용 등	마그나프렌드 임팩트인핸스펀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최초의 임팩트투자 펀드	250억
		마그나인베스트(주)				
		프렌드투자파트너스(주)				
개인투자조합 (지방)	2020.2	MYSC	한국벤처투자, 사회가치연대기금, 와디즈벤처스 등	엑스트라마일임팩트2호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지방계정 펀드 중 최초의 임팩트투자 펀드	20억
벤처투자조합 (경남)	2020.12	MYSC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센트랄 등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하모펀드)	최초로 LP 출자기관과 투자처가 모두 동일 지역으로 구성되는 임팩트투자 펀드	22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투자조합 (성동구)	2020.12	MYSC	성동구, 행복나눔재단, 삼구INC, 휴먼큐브, 한국콜마, EMC 등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기초자치단체가 앵커LP(5억)로 참여하여 구성된 최초의 임팩트투자 펀드	20억
		유진투자증권				
개인투자조합 (강원)	2020.12	소풍벤처스	한국모태펀드,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강원 지역 출신 비즈니스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일반조합원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	강원도 내 규제자유특구(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등) 주목적투자를 통해 임팩트투자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 연고/활동 개인투자자 참여가 가장 많은 임팩트투자 펀드	32억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임팩트투자가 활성화 되기까지의 난관

1. 일반 블라인드펀드에서 지역 소재 기업의 발굴과 투자 집행은 **활성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심사역의 지역 방문이나 지역 소재 기업과의 관계 구축 등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가 어려움 / 서울에서는 ‘망원경’ 발굴 전략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서는 ‘현미경’ 전략이 유효함)
2.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LP를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LP를 구하기 매우 어려움** (지역 기업 투자가 주목적일 때 해당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LP를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3. 지역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펀드의 경우 아직 생태계 초기 단계로서 크기가 20~35억 수준이며 이러한 규모의 펀드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VC 등 **운용사(GP) 찾기가 어려움** (30억이면 연 관리보수 2% 6천만원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기에 가급적 큰 펀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큰 펀드를 만들 수록 지역 기업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음)
4. 일반 임팩트투자 펀드에서도 Financial Return과 Impact 균형 찾기는 어려운 과제를 감안하면 지역 기업 투자로 과연 의미있는 IRR이 나올 수 있는지 **성공사례가 아직 부족함** (지역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 해결 지원 필요)

해당 이슈와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기회요인(가설)의 탐색

1. 일반 블라인드펀드에서 지역 소재 기업의 발굴과 투자 집행은 활성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지역 거점 파트너 확보 및 사회적금융 기관의 육성, 지역 투자딜에 대한 공유와 클럽딜 활성화, 지역투자 등
2.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LP를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LP를 구하기 매우 어려움
⇒ 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역은행, 지역 기업 등의 지역 연고가 있거나, 지역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의 확보
3. 지역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펀드의 경우 아직 생태계 초기 단계로서 크기가 20~35억 수준이며 이러한 규모의 펀드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VC 등 운용사(GP) 찾기가 어려움
⇒ 지역 소재 액셀러레이터/VC의 육성 또는 지역 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운용 자격이 있는 곳에 노하우 전수
4. 일반 임팩트투자 펀드에서도 Financial Return과 Impact 균형 찾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 투자로 과연 의미있는 IRR이 나올 수 있는지 성공사례가 아직 부족함
⇒ 지분투자 외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을 적용하여 지원금(grant), 특례 대출(loan), 크라우드펀딩 등의 추가 활용을 통한 투자 효과를 높이거나,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value-up)

경남 청년임팩트투자 펀드 (일명 '하모펀드')

2020년 12월 결성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육성프로그램 결합 등 투자 외 추가적인 가치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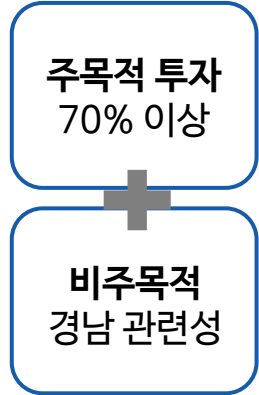
| 주목적 투자대상

경남향 사회적경제조직 100%

- 경남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70% 이상
- 경남 경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등

집중 분야

- ① 청년 (만 39세 이하) 대표자 기업
- ② 로컬크리에이터/지역재생 스타트업
- ③ 경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등



| 운용사



대표운용사

공동운용사

★ 지역 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계망 활용 및 임팩트투자 노하우 전수

| 주요출자자



★ 지역 기업 임팩트투자 펀드 출자에 관심있는 주요 LP들의 참여 (일부는 기부처리를 통해 참여)

주식회사 할리케이 (대구 소재 여성대표 기업)

★ 지역의 협동조합 파트너를 통해 팀 추천 받음



[EVENT] 종이처럼 가벼운 한지가죽 비건 미니백
#Harliek #할리케이 #SAMI #미니백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 옹호자 추가 모집

★ 용자(Nest)와 지원금(예탁결제원 액셀러레이팅 등) 연계를 통한 추가 자원 확보

할리케이 혼합금융



〈할리케이 혼합금융 진행 구조도〉

- **진행 개요:** 초기 자금 확보 및 비즈니스 고도화
- **진행 과정:**
 - ① Seed투자 준비 단계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혼합금융 설계 진행
 - ② 파트너 기관 추천 연계를 통한 시기별 자금 조달 진행 및 공동 모니터링
- **주요 결과:** 단계별 전략 연계를 통한 초기 자금 확보 완료 및 비즈니스 고도화를 통한 시장검증,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투자 준비 중

혼합금융 모델링 (MYSC 혁신자본 모델링)



혼합금융 4층 모델

소셜벤처 '위허들링' 사례

지역의 임팩트투자는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1. 지역 연고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다양한 지역 진흥원 등)이 앵커LP 또는 CO-GP 참여하는 지역 투자 펀드 논의가 계속 진행 중 (ex. 제주창경의 자체 투자 조합 결성 중)
2. 지역 연고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엔젤투자자들의 개인투자조합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3. ‘로컬크리에이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지역의 다양한/새로운 사회적경제 그룹에게 일반 펀드의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4. 비플러스와 같은 사회적경제 투융자 플랫폼을 통한 개인/대중의 참여가 증가하며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조합은 혼합금융의 혜택을 누리며 더 활발한 투자 집행이 가능해짐
5. 지역 기반의 공기업, 지역 기업 등이 전략적 목적에서 LP로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통한 간접참여를 통해 지역 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음 (ex. 최근 한 공기업에서 LP 3~4억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 제안)

감사합니다

jtkim@mysc.co.kr

MYSC / (주)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성수시작점) G401, G402

전화 02-532-1110 팩스 02-6008-1126

메일 info@mysc.co.kr

mysc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임팩트 엑셀러레이터의 현황과 과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현황과 과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

sopoong

SOCIAL
POWER OF
NETWORKED
GROUP

시작하는 소셜벤처의 파트너
소풍벤처스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sopoong}
소셜벤처에게 시드투자자와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2008년부터 함께한
76곳의 소셜벤처.**

이 일을 하는 이유 =
사회문제의 더 빠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해결.

**그리고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소풍

PERFORMANCE

포트폴리오 **76팀** 총 기업가치 **1조 126억원** 생존률 **76%** 후속투자유치율 **35%** 후속투자유치 **5,229억 원**

SOCIAL IMPACT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의식주, 건강, 안전 등 기본적 욕구와 삶의 질을 개선



교육과 기회(Empowerment)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



지속가능한 환경(Environment)

현재,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보존, 기후변화 대응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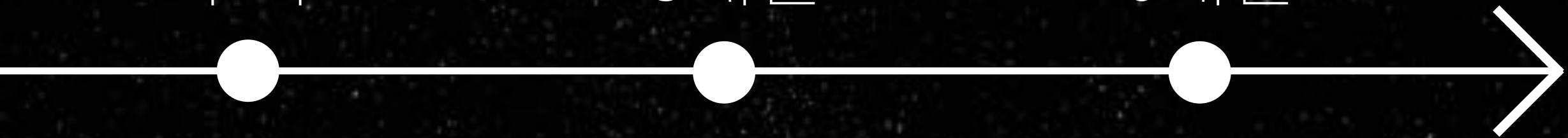


sopoong

투자

+3개월

+6개월



사전
엑셀러레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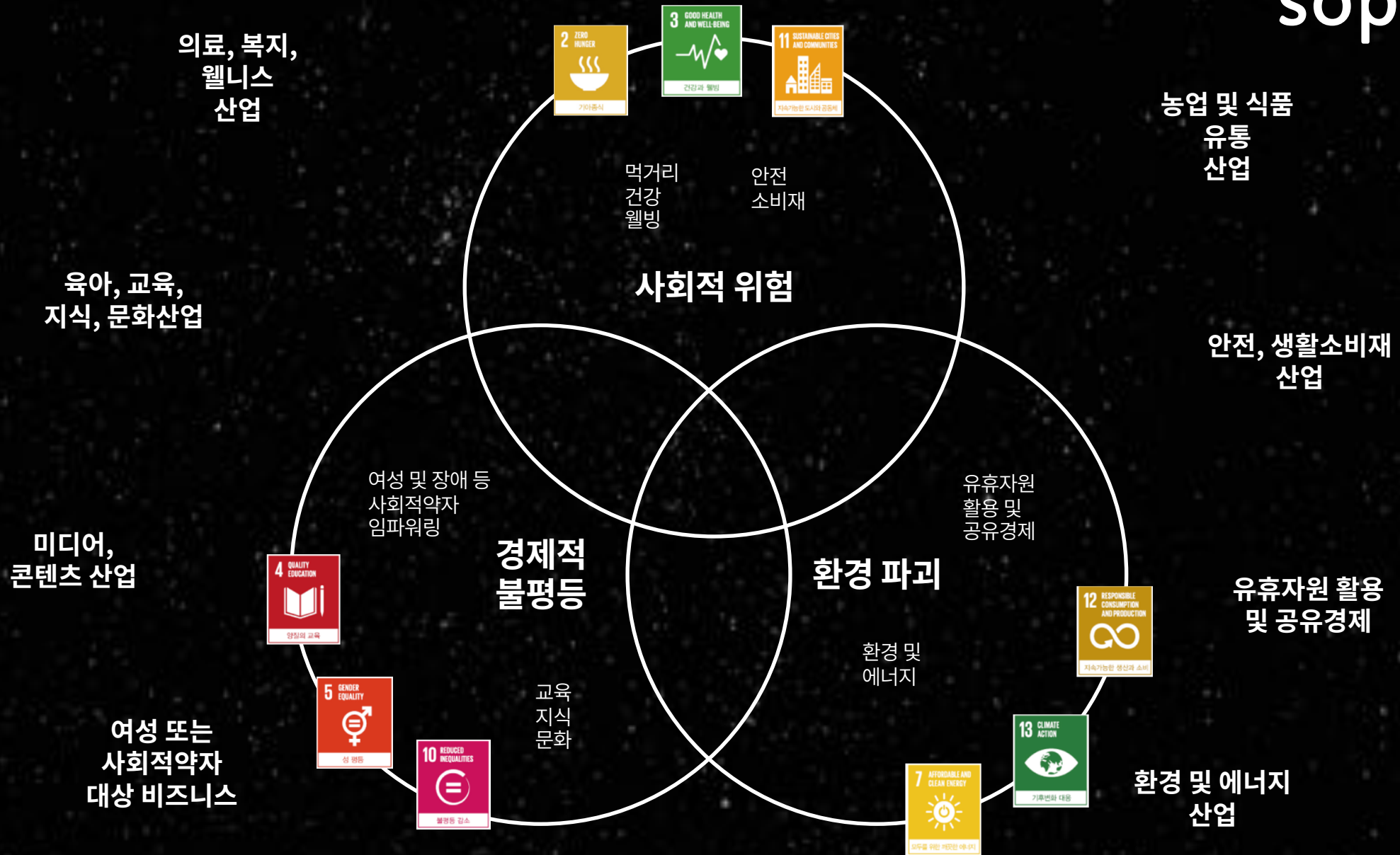
엑셀러레이팅

후속관리

One month

Weekly

Monthly



2020년
Covid19, 0년

총 15개 소 투자
총 3건의 M&A

2020년

Covid19, 0년

2개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셜벤처: 38억원

로컬임팩트: 32억원

- 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벤처투자디캠프, 아산나눔재단, 연세대학교, 강원TP, 카카오임팩트, 강원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사)점프, 원주MBC등 기관
- 20여명 이상의 개인들

2020년 Covid19, 0년

지역 소재 (Local Presence)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소풍 강원 센터 설립
지역 인재 (Local People)	지역의 인재가 주도해야 한다.	강원 지역 벤처파트너, 펀드매니저 육성
지역 자본 (Local Capital)	지역의 자본이 결합해야 한다.	강원 지역 내 기관, 개인 LP 확보
지역 맥락 (Local Context)	지역의 환경과 시간 맥락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 자원을 고려한 투자, 육성, 회수 구조 설계
지역 자산화 (Local Asset)	자본과 경험이 지역의 자산으로 남아야 한다.	지역 자원, 자본, 주체가 지역에 축적, 순환, 재투자
지역 혁신 (Local Innovation)	지역 내 축적된 자산과 외부의 자극을 결합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소풍의 투자, 육성 경험과 강원 지역의 자원, 주체가 협력하여 성공 모델 창출
지역 성장 (Local Growth)	지역과 주변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	외부 자원 유입 없이도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로컬 렌즈 인베스팅

자본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 로컬-주체적 관점의 안경을 쓰고,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이 고유성을 가지는 가운데에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정에서도 로컬이 소외되거나 객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투자.

엑셀러레이터란?

대한민국의 경우 2016년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일명 엑셀러레이터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함.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학문적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짧은 인생의 역사와 해당 기관들의 활동지역, 운영 형태, 설립 목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개념정의 시도들이 존재해 왔다.

“데오데이를 마지막으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수 기반으로 진행되며 멘토링과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 최초의 연구문헌적 정의(Cohen and Hochberg, 2014)

- fixed-term, cohort-based programs, including mentorship and educational components, that culminate in a public pitch event or demo-day

“유망기업에 Seed단계의 투자를 제공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데오데이를 마지막으로 하는 멘토링과 교육 세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수 기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기관”

-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정책 보고서(by Dempwolf, Auer et al. 2014)

- Business entities that make seed-stage investments in promising companies in exchange for equity as part of a fixed-term, cohort-based program, including mentorship and educational components, that culminates in a public pitch event or demo day

“성공한 벤처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

- 엑셀러레이터 연합체 ALF(Accelerator Leaders Forum)

“초기기술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 보육을 실시하고, 초기기술창업자에 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한국 최초의 법적 정의 시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진우 외),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실증분석 및 법제화 방안”, 2015)

“소규모 팀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선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디어 발굴, 초기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민간전문기관 또는 기업”

- 한국생산성본부 (2014)

엑셀러레이터란?

	Incubators	Angel investors	Accelerators	Hybrid
Duration	1 to 5 years	Ongoing	3 to 6 months	3 months to 2 years
Cohorts	No	No	Yes	No
Business model	Rent; non-profit	Investment	Investment; can also be non-profit	Investment; can also be non-profit
Selection	Non-competitive	Competitive, ongoing	Competitive, cyclical	Competitive, ongoing
Venture stage	Early or late	Early	Early	Early
Education	Ad hoc, human resources, legal	None	Seminars	Various incubator and accelerator practices
Mentorship	Minimal, tactical	As needed by investor	Intense, by self and others	Staff expert support, some mentoring
Venture location	On-site	Off-site	On-site	On-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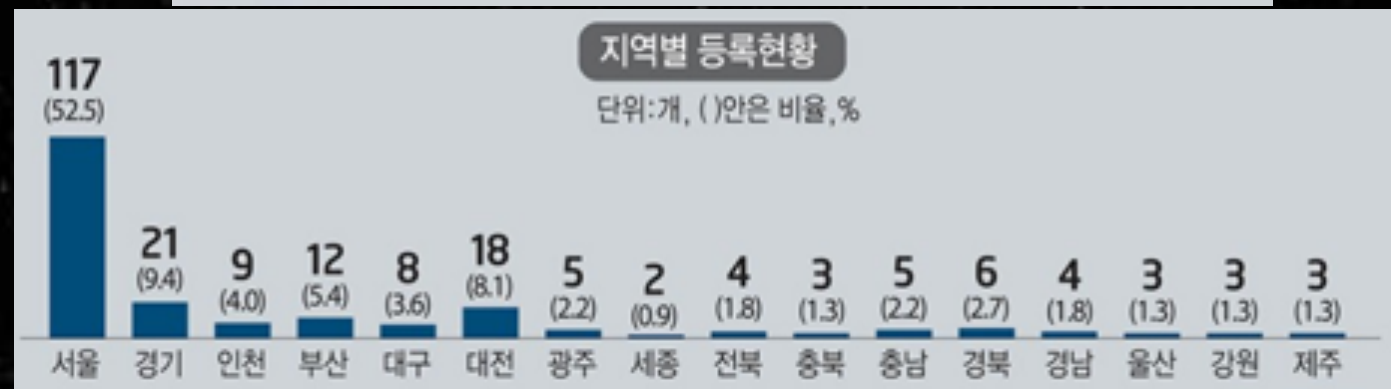
엑셀러레이터란?

확보 시간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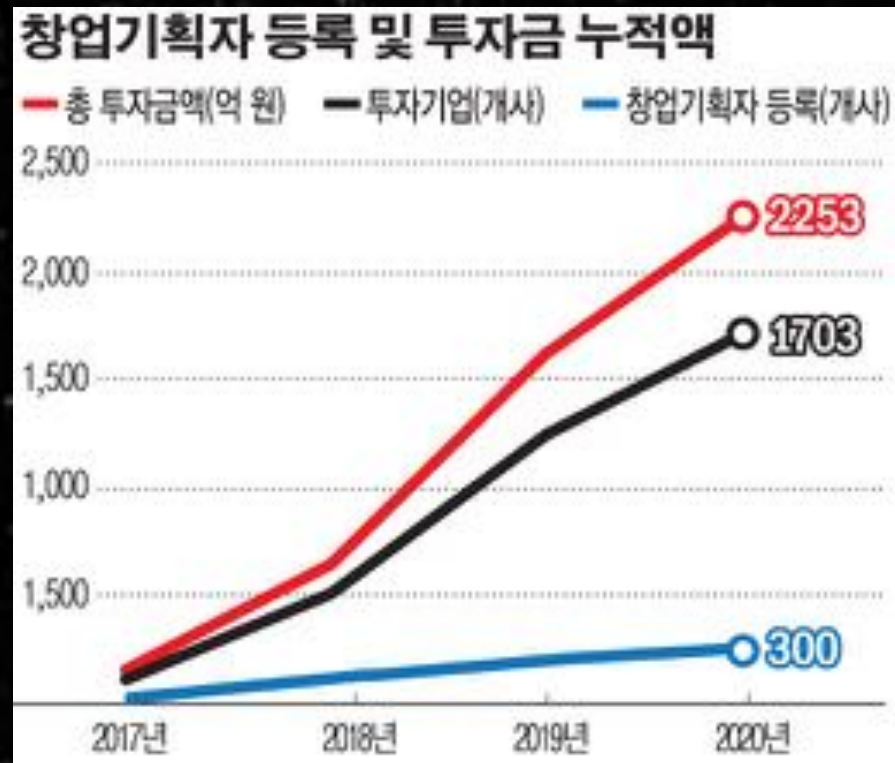
3~6개월의 운전자금

더 빠른 성장
더 빠른 실패

엑셀러레이터란?



엑셀러레이터 전성시대 역대 최고치인 300개 돌파, 그러나



창업기획자 등록 현황

연도	등록	말소	누적(현재 활동)
2017년	56	4	52
2018년	81	2	131
2019년	81	3	209
2020년	82	1	290
합계	300	10	-

※ 2020년은 11월 10일 기준

엑셀러레이터 전성시대 역대 최고치인 300개 돌파, 그러나

2020년 8월 기준, 등록 창업기획자 총 259곳 중
투자실적이 없는 곳이 134곳(51.7%)에 달해...

임팩트와 액셀러레이터

정의, 임팩트, 비용구조, 고객

임팩트액셀러레이터란,

- ✓ 소셜 임팩트를 위해 설립된?
- ✓ 임팩트 펀드를 받은?
- ✓ 소셜벤처에 투자하기도 하는?
- ✓ 임팩트를 고려하는?
- ✓ 임팩트 리포트를 내는?

임팩트액셀러레이터란,

- ✓ 소셜 임팩트를 위해 설립된?
- ✓ 임팩트 펀드를 받은?
- ✓ 소셜벤처에 투자하기도 하는?
- ✓ 임팩트를 고려하는?
- ✓ 임팩트 리포트를 내는?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추산 자료는 없으나

- HGI
- 소풍벤처스
- MYSC
- 임팩트스퀘어
- 언더독스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아름다운 계획



임팩트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현실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현실

시간과 인력, 커뮤니케이션, 평판

사업 피벗으로 인한 임팩트의 변화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기준의 변화

임팩트 측정/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나 벤치마크 등에 대한 고민을 제외해도...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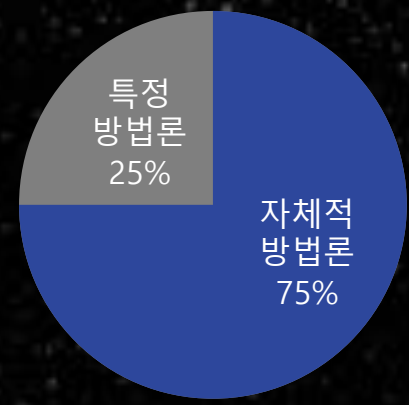
현실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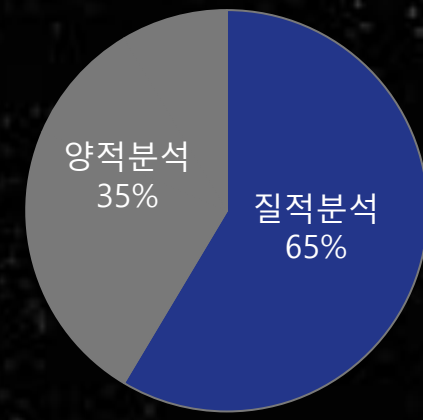
sopoong

임팩트 측정 방법론



국내·외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피투자기업(수혜기업)을 선정할 때,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실시

임팩트 분석 방법



핵심 성과지표(KPI)를 중심으로 정량적 소셜임팩트를 측정했던 뉴질랜드, 스웨덴 등 해외 다수의 임팩트 투자기관들도 최근에는 서술형의 정성적 성과 평가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음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소풍이 하는 것

의도성, 측정지표, 가능성, 실행가능성

Impact = IMP + ACT

Intention 의도

Measurable 측정

Potential 가능성

ACT 실행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소풍이 하는 것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소풍이 하는 것

투자
결정
시점

소셜임팩트

- 장기적 목표: UN SDGs 중 8.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ECONOMIC GROWTH)



-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 불편함 서비스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서비스 개선 및 혁신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공공 및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목소리들이 모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팩트지표

- 위험 된 불편 텍스트 수
- 주제 별 특별 계층에 대한 참여자 수(여성, 장애인 등)
- 파트너 사 수
- 불편항목 분석 후 관련 된 공공기관/기업에 제시된 수

소셜임팩트

- 장기적목표 : UN SDGs 중 12.책임있는생산과소비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 친환경적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
-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활용이 이뤄지는 순환경제구조 만들기 위한 복합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분리배출 시스템과 교육적효과를 높여 실질재활용율이 높일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됨.

○ 임팩트지표

- 분리배출함 누적 설치수
- 분리배출 실 참여자 수
- 이해관계기관 참여수(협력기업, 지자체 등)
- 재활용 누적 처리량(t)
- 기사출판량(홍보,교육효과)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소풍이 하는 것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자란다

Overview 자란다는 전(pre)학령기 및 학령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의 돌봄-교육 선택지를 늘려주기 위해 설립된 소셜벤처입니다.

자란다는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49%이고, 이 중 4~13세 연령대 아이들의 숫자는 약 470만여 명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무지박 초등학교가 끝난 후, 적절한 돌봄-교육 시설을 찾지 못해 골목안길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자란다는 골목 방에서 다양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사교육이나 조부모의 돌봄, 기존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이 인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기와 전공을 가진 청년층을 연결하는 돌봄 증가 대책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자란다는 단순적 아이돌보미나 놀이선생님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이 아니라, 아이 정보와 선생님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매칭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와 선생님의 인사는 과정 하나하나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은 적절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셜벤처를 창출합니다. 특히 자란다는 아이의 연령, 성별, 관심사에 맞는 개별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방문시간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후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자란다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서로를 신뢰하여 공동 양육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니다.




Type	Growth Type	스케일업	인생아이팅
	Solution Type	새로운 솔루션	시장 내 인지도 확산
기존에 솔루션	기존 시장이나 분야에 뛰어들어 시장 밖에서 벗어나, 기존 시장과 맞서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차별화된 내용	새로운 솔루션	자란다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자유로운 스케줄에 따라 당일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도 길게 가능함
	유니크 리얼리티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10년 이상 지속된 70% 이상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1억 3000만 원의 총액 공적으로 인해 자란다는 사업이 시급성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	새로운 솔루션	그 날 찾아 주는 서비스 특성 등을 공신력, 신뢰가 높아지는 서비스를 통해 인지 자유로 자녀 자아 유익에 도움을 진행하여 사회적 가치의 부여, 기업으로 넘어가게 함을 영입할 수 있음
특히 자란다는 인력에서 자유로운 청년층에서 탈피하여 교육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에 최대한의 두 가지들 증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음			

25



자란다

SDG Targeted



Target 4.3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상급 교육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도록 보장하는 질의 양과 접근, 특히 한 교육자의 접근을 보장한다.

자란다는 아이의 연령, 성별, 성취도, 부모님의 요구는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선생님을 추천하고, 선생님의 성별, 성취도, 경력에 따라 선생님과 아이의 매칭을 지원합니다.

수업 도중에 아이의 흥미가 떨어지거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과 선생님이 동일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환경을 만듭니다.

Target 5.4
유치원 설립에 법적 공평서비스, 사회적서비스, 사회적경제, 기업 내 책임 공헌 활동을 통하여 유급 노동을 노동 가치 인식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란다는 기업의 문화 인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년(20대), 학업이 자유로 일하며 유급 노동이 공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하여 청년으로 인하여는 사교육으로 인하여 젊은 층이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Impact KPI

누적 매출액



누적 방문시간



Performance

기업가치



매출액



Profile

연도별 매출액	주식회사 자란다	대안교육 및 서비스	4-13세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설립자	정지민	2014년 설립	2019년 설립
홈페이지	www.joranda.kr	2019년 설립	2021년 설립

26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운영보수

펀드 사이즈 영향

투자/회수를 전제로
조합운용 비용 선수령

투자 회수

오랜 시간 소요
선순환 사이클 어려움
시점-규모 불확실

투자한 기업의 지분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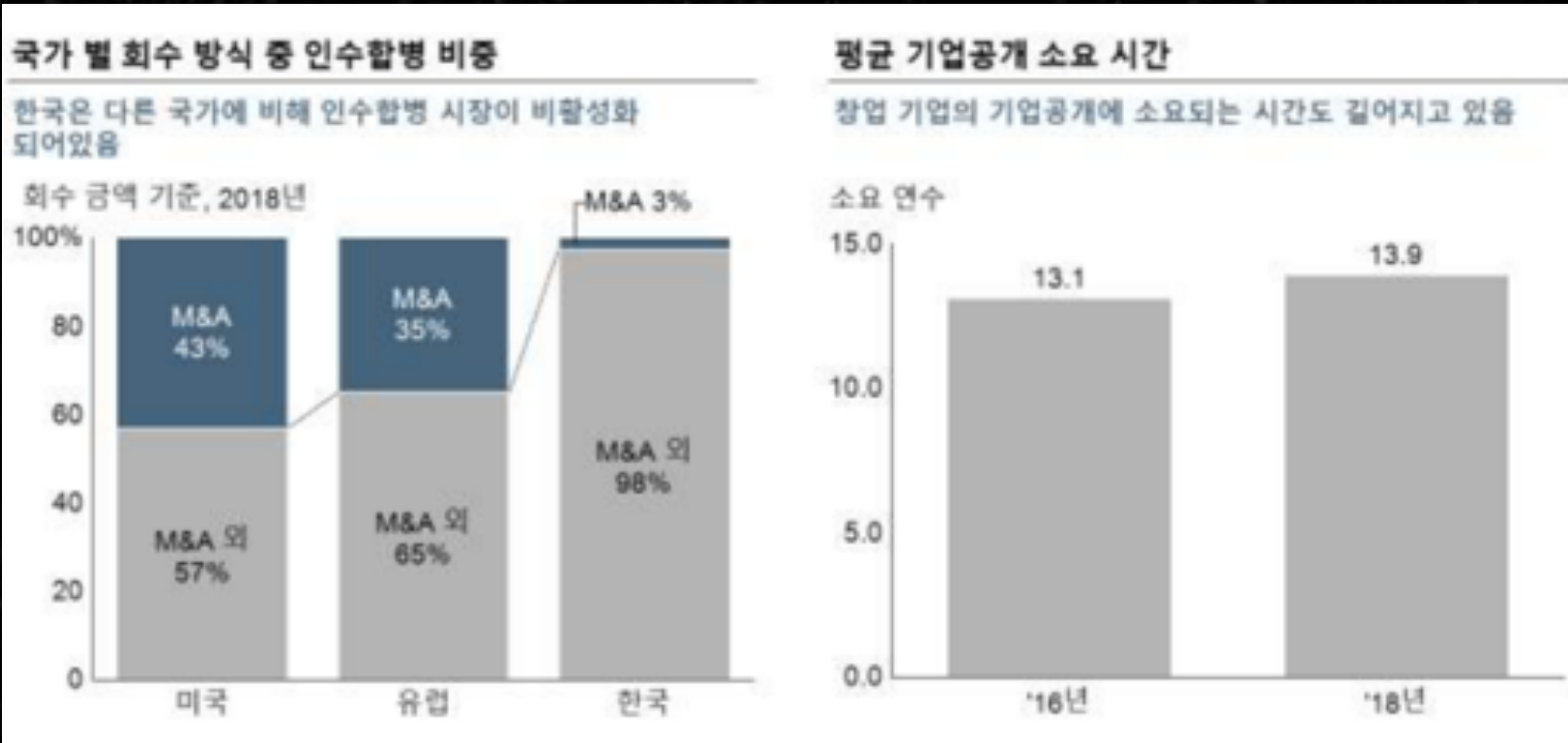
부대사업

정부/대기업
개미지옥 사이클
용역의 폐해

교육 사업 등
용역 수주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투자조합 운용보수
평균 2% ~ 2.5%

액셀러레이터

VC

50억원 내외

200억원 내외

2.5%기준, 1.25억원

2%기준, 4억원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운용보수는 적고
인풋은 많고

액셀러레이터

VC

투자 후
인풋 지속 목표

투자 후
인풋 최소화 목표

1천만원을 투자하든, 1억, 10억원을 투자하든 절차는 동일
투자 전-후의 사업 개입도가 인풋-비용에 큰 영향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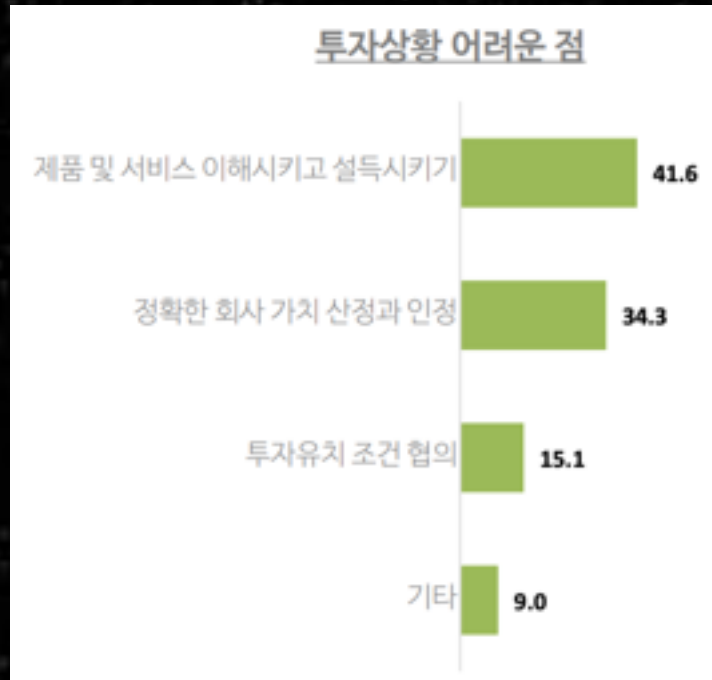
창업자

창투사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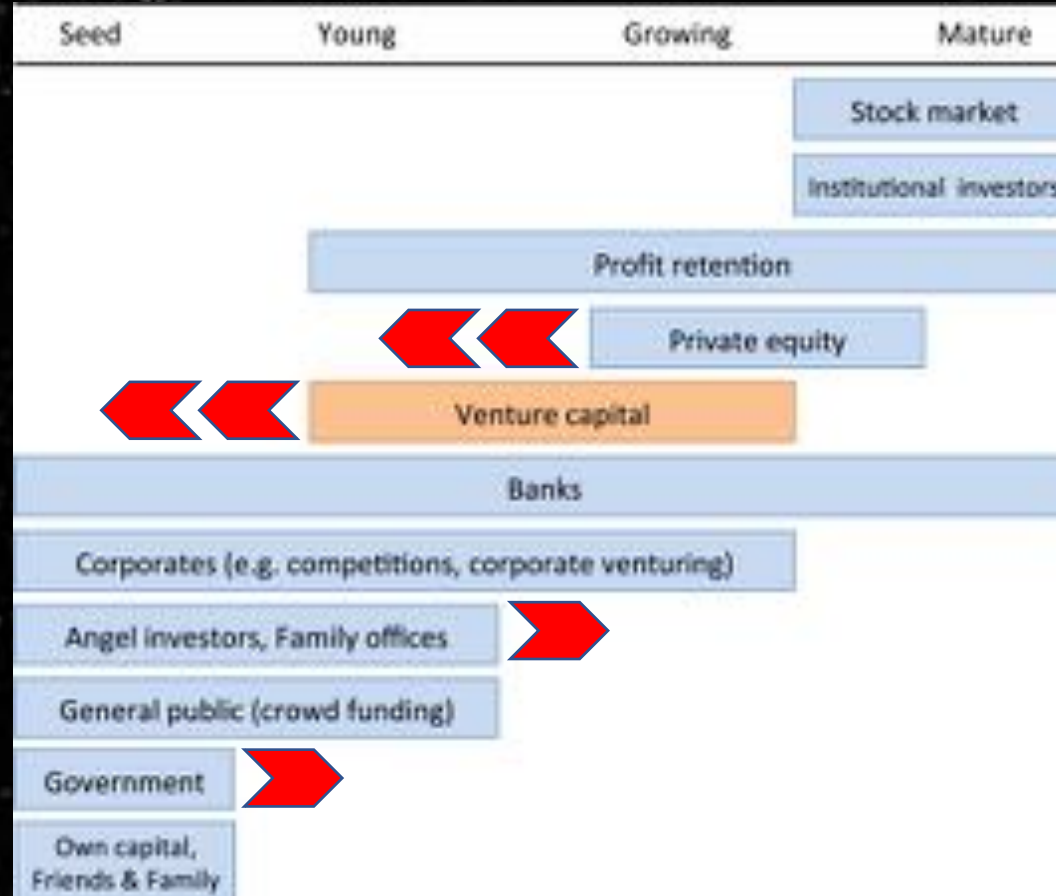
창업자들의 만족도 하락
국내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심사역들의 창업경험과 업력 부족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정부, VC와의 경쟁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sopoong

정부, VC와의 경쟁

(단위 : 개사, 억원)

		기존 계획		이번 대책 (추가)	
지원제도		지원기업 수	지원규모	지원기업 수	지원규모
용자 + 보증					
용자	창업기업자금	8,500	16,000	3,000	5,000
	민간 특별자금	-	-	1,300	2,000
보증	코로나 특례보증	-	-	2,300	4,000
벤처투자					
민간	모태 자펀드	700	16,000	300	7,000
	성장지원펀드	200	14,000	50	3,400
공공	모태 직접투자	30	500	1,430	1,000
합 계		9,430	46,500	8,380	22,400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1억원 이내 매칭 투자를 진행합니다

- 투자대상**
- ① 공고일 직전 3개년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 및 성공(졸업)하고, 해당 사업 주관기관 추천 받은 기업
 - ② 업력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법인기업에 한함)
 - ③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

투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및 투자 후 지분을 10% 이내

접수기간 5월 26일부터 재원 소진 시 까지(매월 3, 15일 접수 마감)

접수방법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온라인 신청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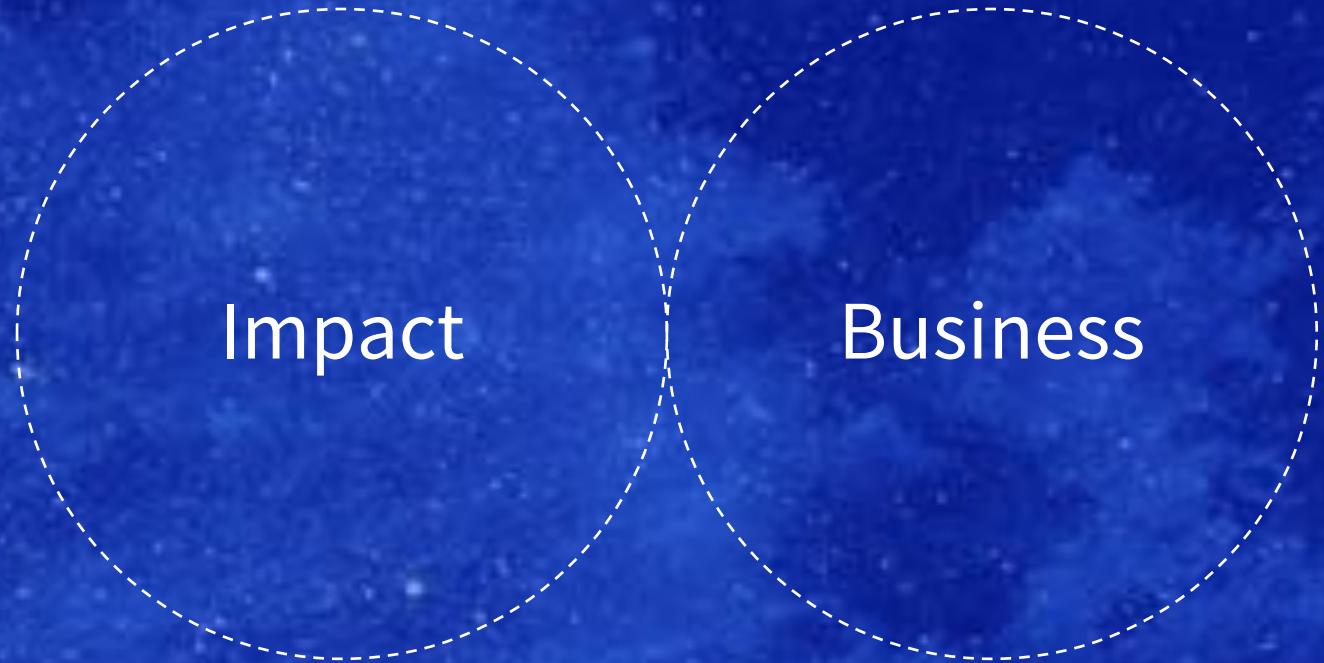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임팩트, 생존,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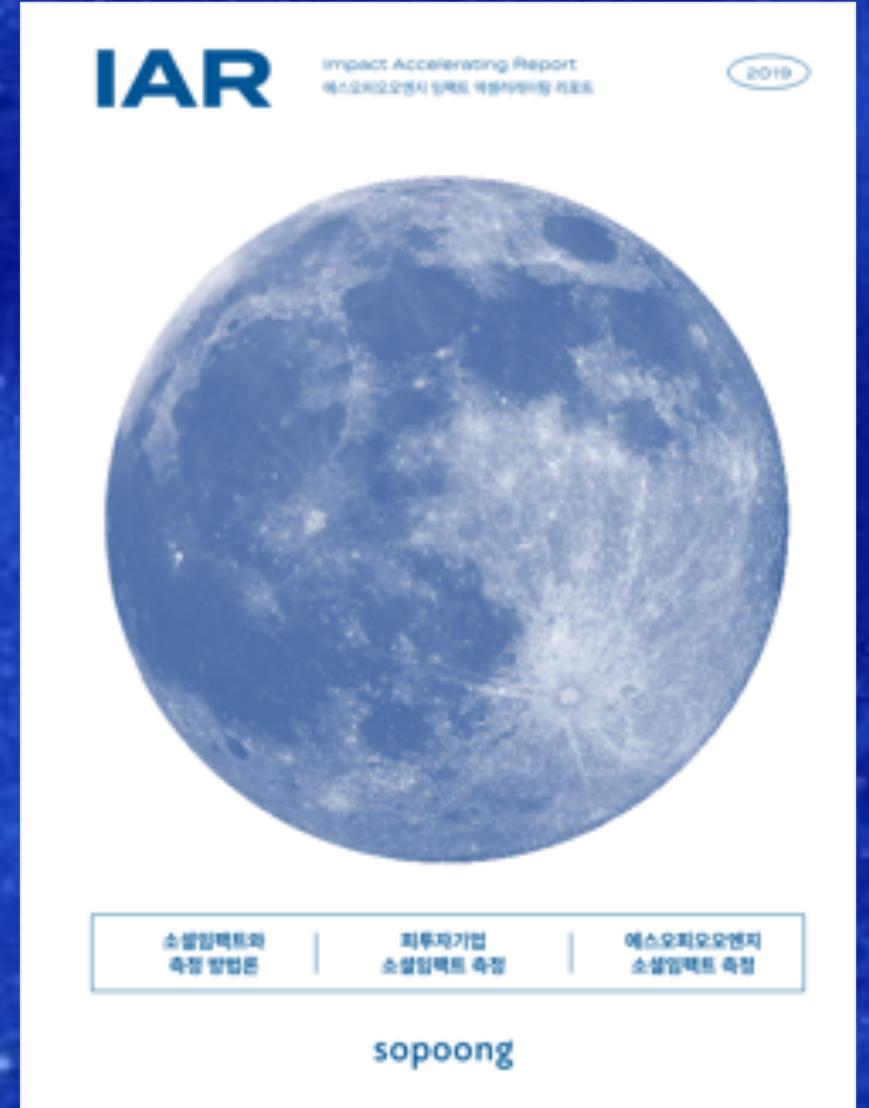
sopoong
업계 표준/기준 수립
(민간 노력)



정의

임팩트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기준



임팩트 투자를 위한
임팩트 보수/인센티브

- ✓ 운용사/운용인력
- ✓ 피투자사

임팩트 비즈니스를 위한
임팩트 프로그램

- ✓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 ✓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스타트업

고객

창업자/창투자
모두가 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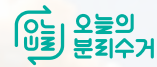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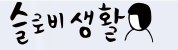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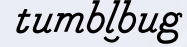
sopoong

임팩트 투자 = 임팩트 도관(**conduit**)

실물경제로 흘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임팩트 액셀러레이터는 임팩트
투자의 마중물

창업가과 임팩트 자본의 연결고리



Not only **Profit**

Value > Price > Cost

But also **Benefit**

sopoong

Entrepreneurship for
Technology for
Investing for

WHAT?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플랫폼 기반 시민펀딩 현황, 발전방향

성진경, 오마이컴퍼니 대표

2021년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플랫폼 기반 시민 펀딩 현황과 발전방향

2021. 1.

OHMYCOMPANY

www.ohmycompany.com

Index.

1. 플랫폼 기반 시민 펀딩 현황

- 클라우드펀딩 개념, 유형, 실적

2. 시민 펀딩 프로젝트

- 대외협업 사업 및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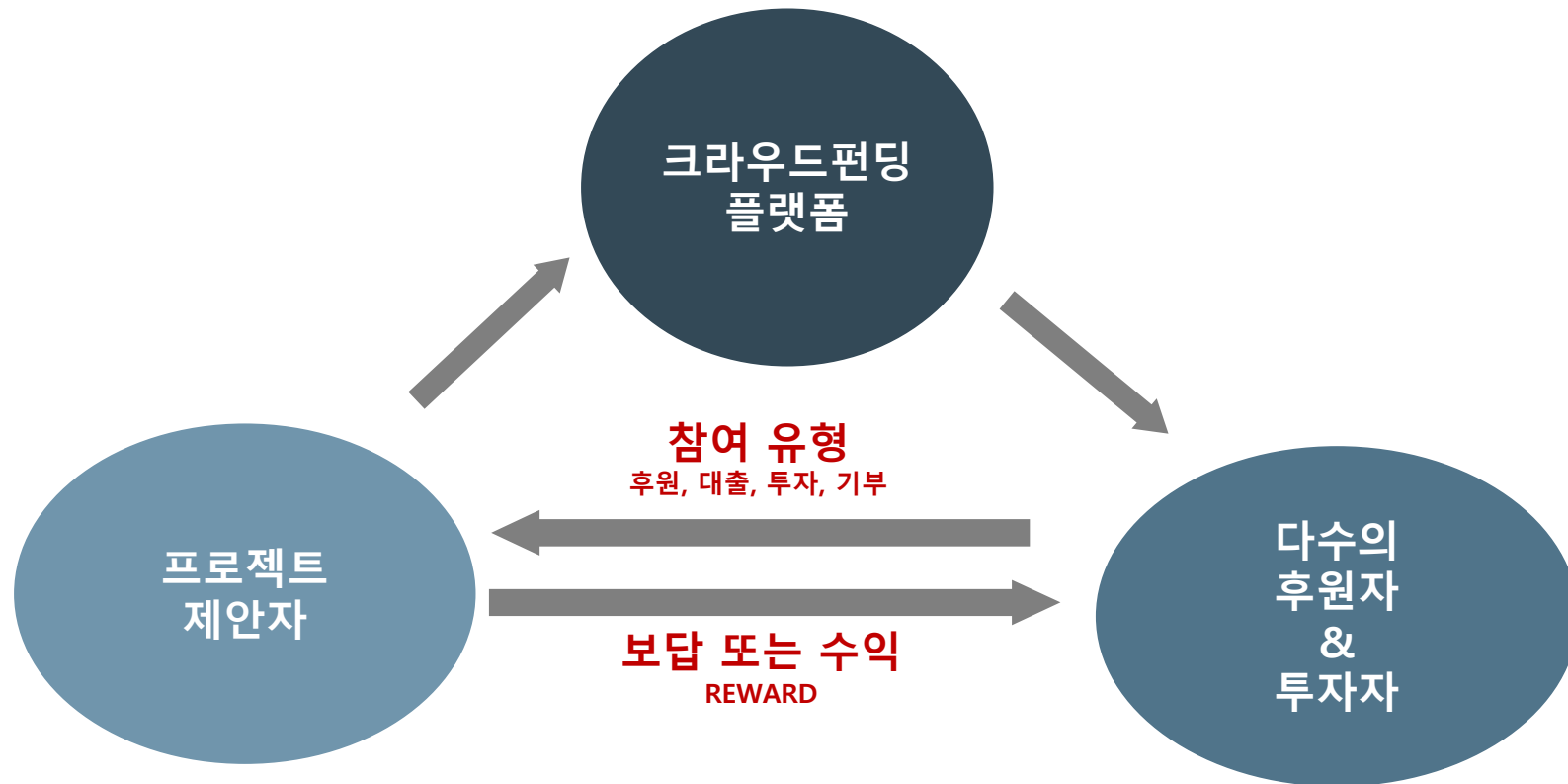
3. 발전 방향

- 시민 펀딩 활성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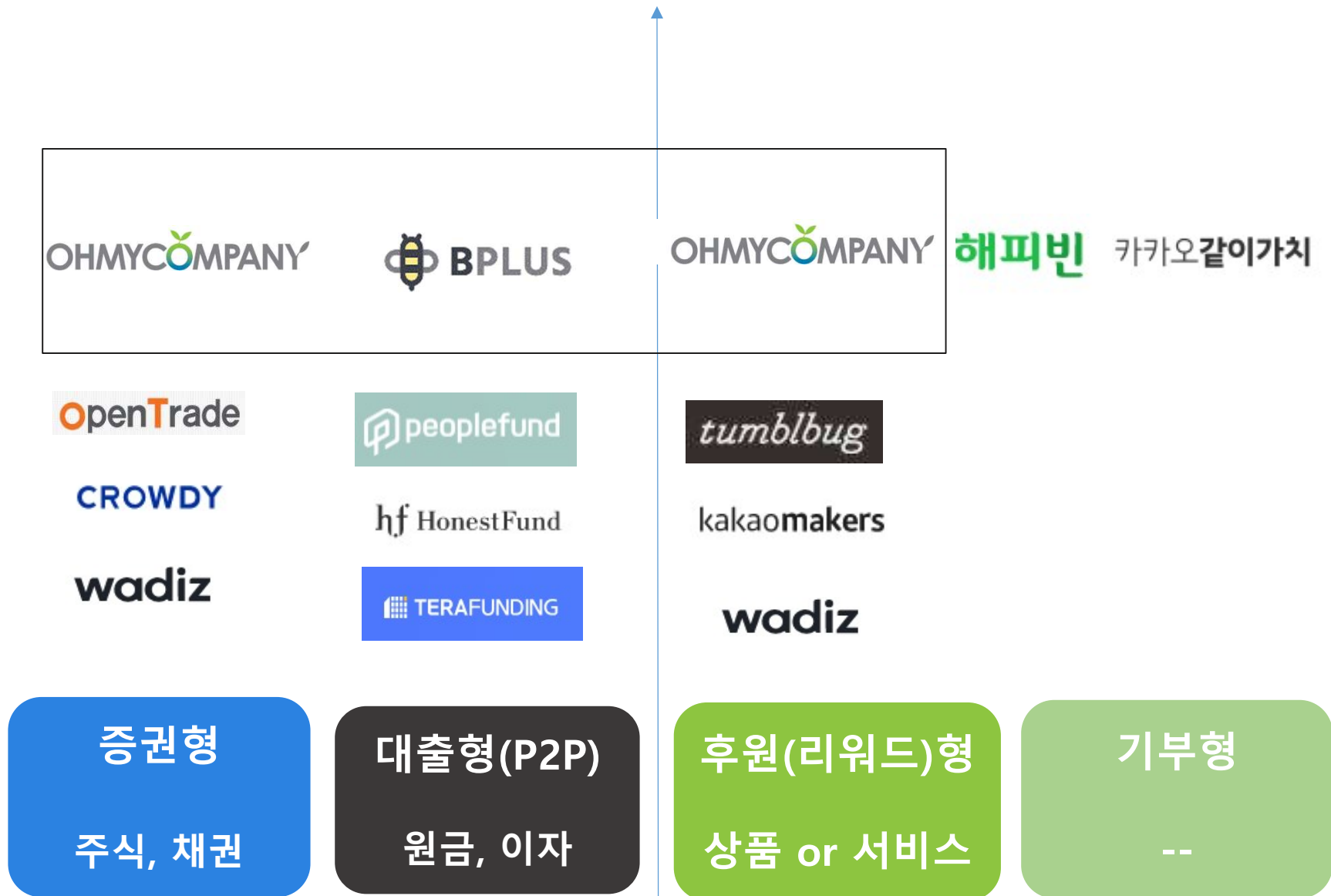
플랫폼 기반 시민 펀딩 현황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Crowd)**로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자금을 모으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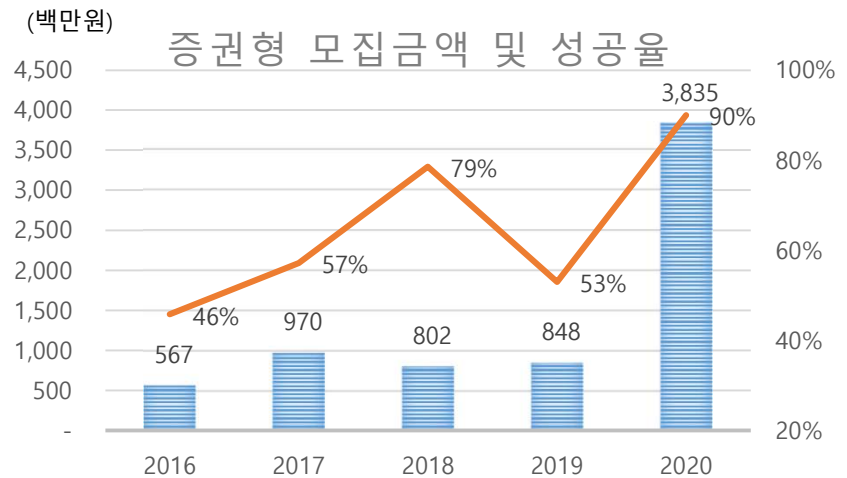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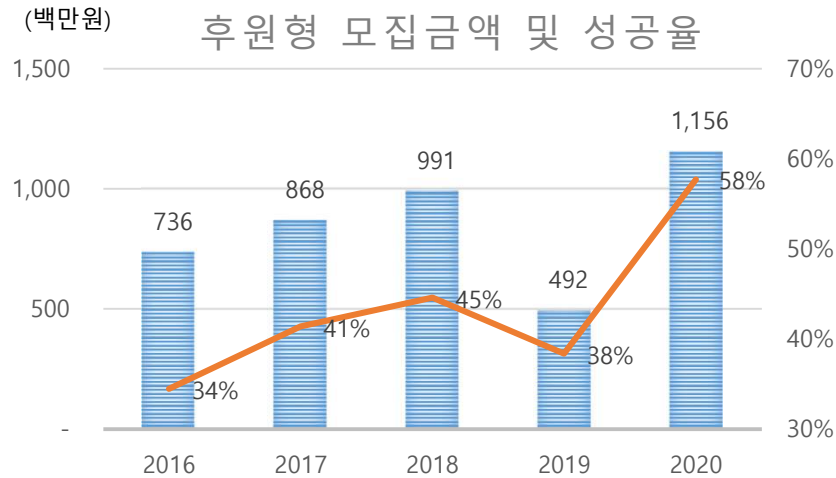


02 크라우드펀딩 유형

플랫폼 기반 시민 펀딩 현황



03 오마이컴퍼니 펀딩 실적



- ✓ 2020년 546개 프로젝트 오픈
- ✓ 실전 487개, 모의 59개 프로젝트
- ✓ 11.56억원 모집
- ✓ 성공률 58% (280개 성공/ 485개 종료)
- ✓ 프로젝트 당 평균 238만원 모집

- ✓ 2020년 19개 프로젝트 오픈
- ✓ 38.35억원 모집
- ✓ 시장 점유율 13% (전체 발행 279억원)
- ✓ 성공률 90% (18개 성공/ 20개 종료)
- ✓ 프로젝트 당 평균 1.91억원 모집

04 비플러스 펀딩 실적

비플러스 누적 대출액

7,565,250,000원

대출잔액

2,679,704,0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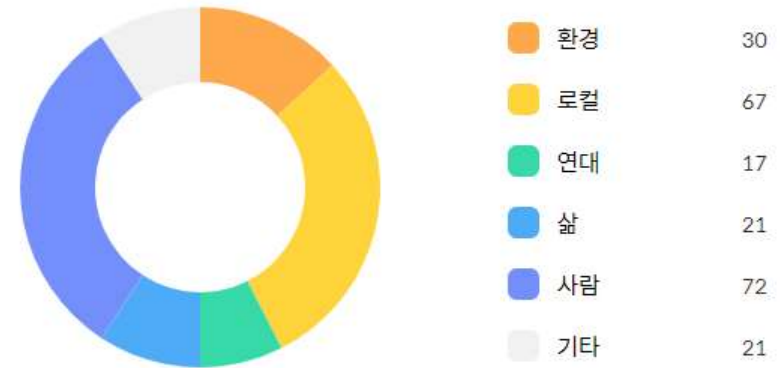
누적 펀딩 수

194건

연체율

4.89%

임팩트 분야별 투자현황



- ✓ 2020년 펀딩실적 : 총 82건, 26억 원 모집 성공(89%)

05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크라우드펀딩 개요



02

시민 펀딩 프로젝트

01 대외 협력 사업

<p>펀딩 수수료 지원</p>	<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증권형, 후원형, 대출형 : MG새마을금고, 하나금융그룹, 한국전력, LH공사 등/ 대출형 펀딩 성공 기업들에게 펀딩 수수료 50% 또는 전액 지원</p>
<p>금융비용 지원</p>	<p>: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증권형, 후원형, 대출형 : MG새마을금고, 하나금융그룹, 한국전력, 사회연대은행 등/ 대출형 성공기업들에게 이자비용(대출형) 또는 상금 (후원형, 증권형)</p>
<p>매칭 자금 지원</p>	<p>: BEF(부산사회적경제지원기금)/ 후원형 후원형 펀딩 성공기업에게 매칭 기금 전달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SVS, IFK임팩트금융, 사회연대은행 등/ 대출형 대출형 펀딩 성공기업에 매칭펀드 추가 용자</p>
<p>사회적가치지표 연계 지원</p>	<p>: 예탁결제원 /증권형 증권형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 SVI 연계하여 포상</p>
<p>투자 유치 지원</p>	<p>: 캡코에너지솔루션(주) / 증권형 제로에너지빌딩 사회주택 사업 협력을 위해 녹색친구들에 23억 원 투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환사채 발행)</p>

02 후원형 우수 사례

시민 펀딩 프로젝트

지친 일상 열심히 일한 당신 별교로 떠나라!

#별교 #이영 #장년 #세원 #게스트하우스



주식회사 일국영화공
wo*****@naver.com

정보 프로젝트보기 개설자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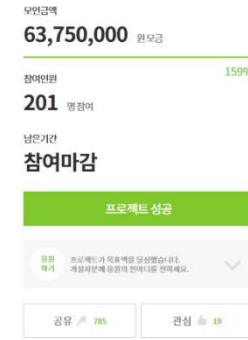
기적의 시민자산화 프로젝트 HAVE IT TOGETHER!

#해빗두게터 #시민자산화 #시민건물주 #지역자산화 #모두의놀이터



해빗두게터협동조합
ha*****@gmail.com

정보 프로젝트보기 개설자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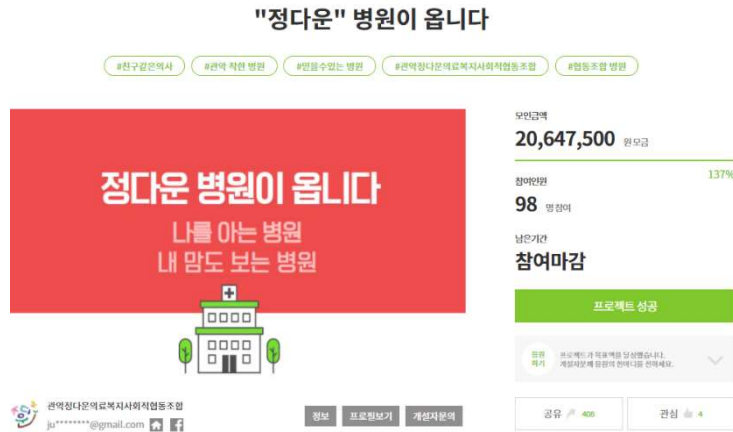


- ✓ 보성 별교의 숨겨진 볼거리, 먹거리 등 개성 넘치는 관광 콘텐츠 개발
- ✓ 지역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실현.
- ✓ 2년 연속 후원형 분야 최고 모집금액을 기록

- ✓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공간을 자산으로 함께 소유하는 시민자산화 프로젝트.
- ✓ MONOL(모두의 놀이터) 지역 주민들이 배움터이자 문화예술공간, 쉼터로 활용
- ✓ 지난해 말 마포구에 건물 매입

02 후원형 우수 사례

시민 펀딩 프로젝트



- ✓ 정다운 병원 설립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 ✓ 조합원,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봄
- ✓ 조합원은 병원의 이용자이자 운영자로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참여
- ✓ 후원자 및 신규 조합원 모집

- ✓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악을 만드는 서울 플랫폼(Soul Platform)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 ✓ 어린이 국악국 <금다래공>을 동화책으로 엮어 선보임으로써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03 증권형 우수 사례

오마이컴퍼니 사모펀딩 1호

건설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도시재생전문기업, 가온텍

혼자 하는 소송 길라잡이, (주)법정문서 맞춤형 법률서비스

- ✓ 콩 원료 식품 제조, 4년간 연평균 51% 매출 성장 달성
- ✓ 생협, 유기농 전문점,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 ✓ 고용인원의 70%를 장애인과 취약계층으로 고용
- ✓ 서울시 긴급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도시락) 참여

-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생산기술 확보한 부산형 도시재생전문기업
- ✓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 ✓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 ✓ 주식 + 리워드 + 소득공제

- ✓ 셀프로(SELF LAW) 법률 서비스
- ✓ 개인이 혼자서도 유사한 과거 판결과 필요한 문서 검색을 통해 법률 대응 지원
-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법정보 취약계층 지원
- ✓ B2C, B2B, B2G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 중

04 대출형 사례

시민 펀딩 프로젝트



비플러스 소셜투자프로젝트 제 138 호

주인이 100명인 펍이 있다?

건맥1897협동조합의 마을펍 설립비용 펀딩

모집금액 6,000만원 (100.0%)

목표금액 6,000만원

- ✓ 지역주민 주도 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산 매입 및 마을펍,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 ✓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사업과 연계하여 펀딩 진행
- ✓ 지역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SVS, 신협 등에서 협력 융자 진행
- ✓ MG새마을금고에서 금융비용(이자) 지원



비플러스 소셜투자프로젝트 제 204 호

제주 조릿대가 만드는, 일하기 좋은 세상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의 운영비용 펀딩

모집금액 15,000만원 (100%)

목표금액 15,000만원

- ✓ 제주 지역 농산물/가공식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사회적기업
- ✓ 설 명절 대비 재고 확보비용 마련 펀딩

03

발전 방향

01 시민 펀딩 활성화

발전 방향

도시재생

- ✓ 도시재생, 시민자산화 프로젝트 적극 발굴
- ✓ 시민 투자 커뮤니티 활성화
- ✓ 지역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콘텐츠)

시민 투자
활성화

- ✓ 시민 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 임팩트 투자기관의 리딩 투자

크라우드펀딩
협업 확대

- ✓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유형별 협업 확대
- ✓ 대상 사업체에 자금조달 선택권 확대

플랫폼 육성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증권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은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함.
- ✓ 사회적금융, 임팩트투자기관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운영사)에 대한 투자 필요

Thank You



reward@ohmycompany.com

02.388.2556.

2021
2021. 01.12(화) 13:30~16:00
2021. 01.21(목) 14:00~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신용협동조합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이사장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신협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이 현 배 이사장
(주민신협)

신협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신탁 일반 현황

▪ 2020.9월 기준 자산 108.7조원, 영업점 1,662개 운영

- ✓ 2020년 신탁 설립 60주년
- ✓ 기념식 등 미개최 → 무명영화인 등 후원

구분	자산(조원)	수신(조원)	여신(조원)	출자금(조원)	조합수	영업점수
20.9월	108.7	97.8	76.1	5.8	881	1,662
전년말	102.5	92.0	71.0	5.4	883	1,665
증감	6.2	5.7	5.1	0.4		
증감율	6.1	6.2	7.19	6.58		

신협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영

- ✓ 상생협력대출금(2016.6월 출시)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대출상품

▪ 중앙회 내 사회적금융 전담조직 신설 운영

- ✓ 사회적경제추진기획반 설치(2017.10월)
- ✓ 사회적금융실(2020.3월)로 확대 개편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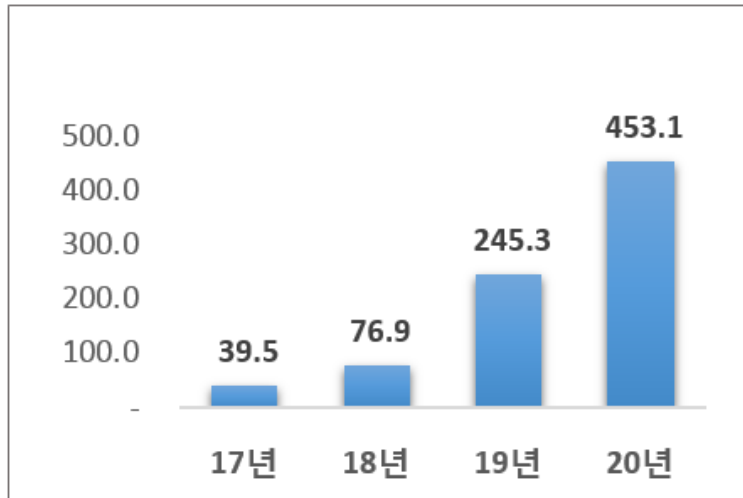
- ✓ 전국 71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2019.8월) 운영

신협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2020년 중 453억원 신규 공급
 - ✓ 2020년말 기준 대출잔액 68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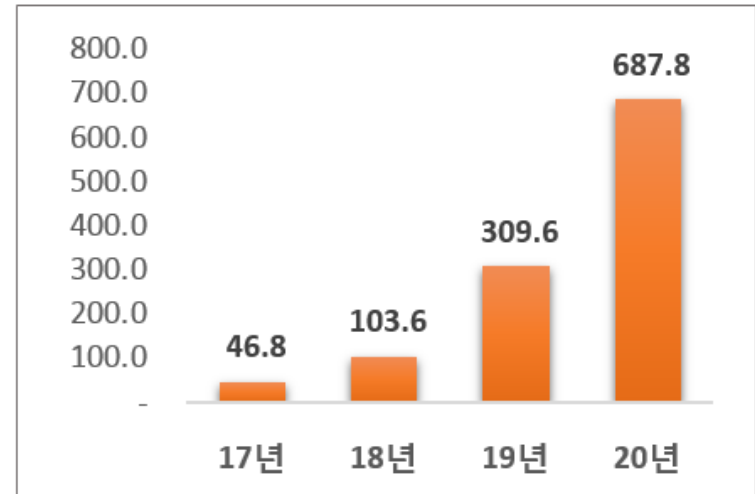
<상생협력대출금 신규취급액(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39.5	76.9	245.3	453.1



<상생협력대출금 잔액(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46.8	103.6	309.6	687.8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업 활성화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용자

- ✓ (내용) 경기도가 기금을 신협에 무이자로 대여(185억5천만원)하고, 신협은 동자금을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로 운용(손실위험은 신협이 부담)
 - ✓ (조건) 사회적가치평가를 토대로 경기도가 2.0% 이자 지원(기업 실부담 1.0%)
- 2021년 1분기 중 신협 자체자금으로 대출하고 경기도가 이자지원(2.0%)하는 협조용자 사업 개시 예정(연간 200억원, 5년간 1,000억원)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 ✓ (내용) 신협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하고 충남도는 기업에 대해 이자 지원(2.0%), 신협에 대해 손실의 일부(70%) 부담
-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 신청
- ✓ 3년(2020년~2022년) 간 200억원 대출 공급

성과와 한계

- **민간금융기관 중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 사회적금융 추진**
 -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대책 중 대출부문의 대부분을 신협에서 취급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정착**
 - ✓ 71개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중심으로 지역별 사회적금융 기반 확보
 - ✓ 지자체 협력사업(경기, 충남)을 토대로 취급 신협 확대
 - ✓ 신협 자체 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내부 추진기반 강화 필요
- **제도적 기반 없이 독자적 사업 추진의 한계**
 - ✓ 사회적경제기본법, 신협법 등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지원 없이 신협 독자적인 사업계획으로서 추진
 - ✓ 관련 사업이 '대출'로 한정되어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한계
 - * 회계교육 및 프로그램 무상 보급, 창업지원 사업 등 별도

제도개선 방안



신협법 개정안 (2020.7.15. 전재수의원 대표 발의)

- **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지역경제 발전과 조합원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 **(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등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 **신협의 타법인 출자 일부 허용**
 - ✓ 조합이 복지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등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
 - ✓ 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및 동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 ✓ 조합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

신협법 개정 필요성

▪ 지원 방식 다양화

- ✓ 타법인 출자 허용을 통해 기존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외에 '출자'를 통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
- ✓ 출자를 통해 사업위험 및 투자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재원을 규모화

→ 타법인 출자는 규제차이 해소(농협, 새마을금고는 전면 가능) 차원에서
서도 허용 필요

▪ 신협의 연합조직 참여

- ✓ 개별법·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상생을 위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가능해야 참여 가능**

▪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상호협력, 신협사회적경제지원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건전성분류 완화

- (현행)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실행한 대출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10%의 대손충당금 설정(당해연도 비용처리)
 - (1) 3년 연속 결손금 보유 기업
 - (2) 부채가 연매출액을 초과하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는 기업
 - (3) 자본 완전잠식 기업
- (문제점) 영세하고 업력이 짧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상당수 기업이 요주의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어려움
- (개선방안)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에 대해 대출실행 후 2년 간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희망사항의 일종입니다.

■ 신협 자체 보증업무

- ✓ 신협 자체 보증기금 및 보증업무가 가능할 경우 사회적금융,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

■ 사회적금융 친화적 세제 환경

- ✓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신협이 내부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한 법적 뒷받침을 통해
신협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필요

1. 사회적경제 전담자 교육.훈련 역량강화
2.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역별 연구개발 활성화
3. 사회투자금융 부문 확대(사회공헌재단의 사업다각화)

사회적경제 | 사회적금융  신협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기반, 개선과제

문성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기반, 개선과제

○ 문성환 신나는조합 상임이사(2021.01.12)

1 마이크로크레딧¹⁾ 역사

- 1983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무함마드 유누스)
- 2000년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신나는 조합
 - 1997 IMF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 시작.
-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희망키움뱅크(2009년-보건복지부) : 사업종료
 - 서울시희망드림뱅크(2009년-서울시) : 현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변화 발전
 - 미소금융(2009년 미소금융재단) : 휴면계좌 재원을 활용 신용등급 6-10등급의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서비스
 - 서민금융진흥원(2016년시작-현재. 미소금융 포괄 종합적인 M.C 유형의 사업 총괄)

1)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또는 무담보 소액대출(無擔保 少額貸出)은 영세민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기회를 마련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위키백과

2 마이크로크레딧의 필요

-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적 금융안전망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금융서비스 이외 자립, 창업프로그램의 비금융서비스 연계
 - 심리정서적 지원 및 지출관리를 통한 자립 역량 강화
 -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소셜프랜차이즈 등 창업성공을 제고

3 현재 마이크로크레딧의 한계 및 도전

- 재원의 공공기금 의존도 높아 자생력 및 변화발전 가능성 한계
- 서민금융의 제도화와 사회복지시스템 발전으로 역할 및 필요성 축소
- 마이크로크레딧의 주요 역할 자립프로그램, 창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약화
- 대상자 발굴 및 사업집행의 기계적 프로세스 및 특수성 약화
 - 서민금융대상자에게 신용등급 중심의 대출프로그램 (과거의 신용이력, 상환능력만 고려한 지표중심 자금운용)
 - 서민금융의 특수성 및 사회적 필요성 간과 (사회적 자본, 시민권리-인간의 권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고려 미흡)

4 마이크로크레딧의 개선과제

○ 재원 조달

- 금융서비스와 과정관리서비스의 이원화 자원조달
(금융재원은 공공기관, 사회기금 + 자립, 자활은 사회서비스재원)

○ 자금운영

- 부실채권 상각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관리
- 신용유자, 관계금융(사회적 보증) 중심의 자금운영
- M.C에 유입된 기금은 자체적인 선순환 자금화로 사업안정

○ 대출자 자립, 자활 프로그램

- 안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M.C 창업과정 운영
(사회적 경제 유도 - 업종별 연합회, 소셜프랜차이즈 연계 및 연대)
- 탈빈곤의 자립의지를 증진하여 부실을 최소화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 및 과정관리- 상담, 교육, 창업지원)

4 팬데믹 이후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

○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으로써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과 필요성 강화

○ 취약계층 자산관리 서비스 필요

- 자산양극화 심화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자산관리교육

○ 사회적금융, 서민금융 사각지대 존재

- 하위 신용 7등급 이하는 중복적인 금융안전망 필요.

4 끝내면서

- 마이크로크레딧은 단순한 금융서비스를 넘어 ‘사람, 자금, 기술’이 고르게 융합된 사회적 프로그램임.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 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대출금액, 상환율은 고려하되 사회적·금융적 취약계층의 자립의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 성장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기금의 선순환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는 더욱 심화된 양극화속에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신보와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팬데믹 진행과정에서 이미 위 기관들의 대출한도를 채워 더 이상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또 다른 재원의 확보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이후 주요 정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금융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상황임

2021

2021. 01.12(화) 13:30~16:00
2021. 01.21(목) 14:00~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2차

2021.
01.21(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

사회 :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수요 현황
정원각,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상임이사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방안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및 제도화 고려 사항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교수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효과 검토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토론 및 마무리

2021
2021. 01.12 (화) 13:30~16:00
2021. 01.21 (목) 14:00~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수요 현황

정원각,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상임이사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수요 현황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를 중심으로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상임이사 정원각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Gyeongnam Social Value Finance

1 조직 목적과 개요

1-1 목적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융자와 중개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목적으로 함.

1-2 조직 명칭과 법인 성격 ; 주식회사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민법 상 법인사단(또는 재단)법인, 협동조합, 대부업 검토 주식회사 대부업으로 결정

1-3 참여

- (1) 경남의 4개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들이 추천하는 법인과 추천인
- (2) 그 외의 사회적경제 기업, 개별 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 (3) 경남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들
- (4) 그 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관심 있는 개인, 법인들
- (5) 설립 자본금 ; 5천1백만 원
- (6) 창립 총회 ; 2019년 12월 20일
- (7) 법인등기 ; 2019년 12월 31일
- (8) 대부업 인가 ; 2020년 1월 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접수 진행 중



설립배경과 필요성

경남 사회적기업 평균매출액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전국			경남		
	매출액 (전체)	기업당 평균 매출액	기업수	매출액 (전체)	기업당 평균 매출액	기업수
2014	1,465,156	1,203	1,217	46,095,703	768	60
2015	1,967,742	1,347	1,460	58,004,483	773	75
2016	2,596,322	1,582	1,641	67,329,603	874	77
2017	3,553,058	1,950	1,822	73,080,504	880	83

경남 협동조합의 매출 및 총수입 규모

(단위: 개, 만원)

구분	2차(2015)						3차(2017)						
	총수입		매출액		영업외 수입		사례 수	총수입		매출액		영업외 수입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23,389	69,162,631	21,039	62,213,341	2,350	6,949,290	5,087	29,095	148,005,496	27,272	138,730,961	1,823	9,274,534
경남	18,305	1,976,890	16,219	1,751,653	2,086	225,237	204	25,284	5,157,941	22,764	4,643,949	2,520	513,992
전국 대비	78.3	2.9	77.1	2.8	88.8	3.2	4.0	86.9	3.5	83.5	3.3	138.2	5.5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2018년 11월 조사)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	백분율(%)	표본수	백분율(%)	표본수	백분율(%)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	163	57.0	44	16.1	29	11.1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11	3.8	20	7.3	11	4.2
마케팅 및 홍보 부족	23	8.0	60	21.9	71	27.1
판로애로	41	14.3	65	23.7	39	14.9
사업장, 장비 및 설비 미비	24	8.4	60	21.9	43	16.4
전문기술 또는 정보 부족	5	1.7	9	3.3	28	10.7
전문경영능력 부족	9	3.1	7	2.6	12	4.6
회계·노무 등 경영관리 애로	2	.7	9	3.3	24	9.2
기타	8	2.8			5	1.9
합계	286	100.0	274	100.0	262	100.0

문2. 지원내용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	백분율(%)	표본수	백분율(%)	표본수	백분율(%)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80	29.9	19	10.9	9	6.0
사업개발비	26	9.7	47	27.0	15	10.1
경영컨설팅	5	1.9	10	5.7	11	7.4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11	4.1	15	8.6	14	9.4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10	3.7	9	5.2	17	11.4
사업장·시설비 장비 지원	68	25.4	31	17.8	27	18.1
법인세 등 세제감면 지원	2	.7	6	3.4	9	6.0
사회보험료	2	.7	6	3.4	10	6.7
전문인력 지원	7	2.6	16	9.2	15	10.1
기타	2	.7	4	2.3	3	2.0
해당사항없음	55	20.5	11	6.3	19	12.8
합계	268	100.0	174	100.0	149	100.0

필요한 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인건비	111	37.1	49	17.6	33	13.0
사업개발비	36	12.0	44	15.8	26	10.2
경영컨설팅	5	1.7	10	3.6	17	6.7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42	14.0	49	17.6	28	11.0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24	8.0	30	10.8	28	11.0
사업장 · 시설비 · 장비 지원 등	53	17.7	57	20.4	55	21.7
세제지원	2	.7	8	2.9	15	5.9
사회보험료	2	.7	4	1.4	15	5.9
전문인력지원	17	5.7	20	7.2	15	5.9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2	.7	6	2.2	16	6.3
기타	5	1.7	2	.7	6	2.4
합계	299	100.0	279	100.0	254	100.0



설립배경과 필요성

경남사회적경제육성5개년계획(2018년)

- 경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체계와 중개기관의 역할, 지역기금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때 경남은 당사자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사회적 금융기관의 부재, 그리고 이제 막 출범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조직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적금융이 발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음
-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로 다음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
 - 관계형 금융상품 개발
 - 조직유형 및 사업 특성에 맞는 자금배분 유도
- 중장기 과제로는 다음을 제시
 - 기금조성 및 사회적금융 플랫폼 확보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과 제도화



설립배경과 필요성

3-1 당사자 조직들의 요구

- (1) 2018년 경남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위한 당사자 기업 설문조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가장 큰 어려움?' 질문에 응답자 57.0%(163명)가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
- (2) 이에 대한 해결로 응답자의 반인 49.8% 자금 지원으로 응답,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은 7.2%. 그 동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립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관행 표현
- (3) **지원이 아닌 용자, 대출의 요구는 8.0%에 머물렀지만 이 응답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음.**

3-2 경남의 사회적경제 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기관의 필요성

- (1) 경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경남은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숫자, 종사자, 매출 등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2) 경남에서는 창업과 함께 스케일업이 필요한 단계 ; 창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과 함께 매출 확대와 종사자 확대 등은 스케일업이 필요함.
- (3) 자금 조달과 경영 컨설팅을 통한 스케일업 : 스케일업은 자금 대출 등을 하면서 경영상태를 개선하는 컨설팅이 필요함. 경남의 사회적 가치 사업에 대출이 필요함.



설립 과정

2-1 경남에서의 논의

- (1) 2018년 8월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출범 이후 현장 면담 시 요청
- (2) 2018년 10월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 추진단 워크숍에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 공급할 조직 설립의 필요성 논의함.
- (3) 2018년 12월 경남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때 당사자 조직들의 요청
- (4) 2019년 1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창립 때에 사업 계획으로 채택

2-2 경남과 전국에서 포럼 등 정책

- (1) 2018년 11월 28일 1차 포럼
 - ① 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 ② 곳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 ③ 제목 :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
 - 발표와 발표자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필요성과 진행 현황 발표,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현 실장)
 - 신나는 조합과 같은 소매금융의 역할, 노영한 팀장(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장)



설립 과정

(2) 2019년 5월 16일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자금 조달 부분

① 때 : 2019년 5월 16일

② 곳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③ 제목 : 「경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사회적경제 기금”, 정원각 단장

(3)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 위원회

① 때 : 2019년 9월 20일 오전 10시

② 곳 : 국회의원회관

③ 제목 내용 :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과제, 장지연 실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경제 공제 활성화 방안, 김대훈 대표(세이프넷지원센터)

-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 문보경 금융위원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3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논의

(1) 연대기금 출범 전 ; 2018년 10월 말 김정현 실장에게 정원각 단장이 설명을 들음.

(2) 출범 이후 ; 약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금융 설립 방법과 절차, 그리고 연대기금과 협력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함.

4

경남 사회적금융 생태계 현황(자금 수요와 조달)

자금조달 실정*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주로 출자금 및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출자금(72.8%)>보조금(14.6%)>금융기관(5.0%)>특수관계인 차입(1.4%), 기타(6.2%)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금융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

- 기타(76.1%(대출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음))>협동조합 금융기관(11.1%)>

일반은행(8.5%)>비영리 단체(5.0%)

* 경남연구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유선조사('20.2.10. ~ 2.28.) : 357개 대상

이후 방법 : 외부 자원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과 이차차액
보전 정책,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서민진흥원, 기타 사회적금융 이용

4 경남 사회적금융 생태계 현황(자금 수요와 조달)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대출 수요(2019년 8월 조사) 50개 기업 응답

	3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합계	22,260,000,000	10,450,000,000	7,740,000,000	4,070,000,000
프로젝트 자금(태양광 등)	5,710,000,000	1,560,000,000	2,150,000,000	2,000,000,000
부동산 매입, 보증금 자금	940,000,000	940,000,000		
시설, 장비, 인건비 등 운전	15,610,000,000	7,950,000,000	5,590,000,000	2,070,000,000

자금수요 및 규모(2020년 2월 경남연구원 수요 조사(357개 기업 대상))

주요용도 : 인건비 등 운영자금(57.9%)과 시설자금(16.5%)

필요자금 : 주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

평균 자금수요 : 9,456만원 정도(기업당), 총 자금수요 : 500억원 내외 추정

4-1 자금조달 방법(1) - 금융의 조달 방법 :

=> 대출시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내부 조달 노력과 연계할 필요

1) 내부 조달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로부터 납입된 주식 출자금으로 조성

(1) 현재 5천1백만 원, 28개 기업과 개인 참여 : 5년 후 자기 자본 5억 목표 온라인 p2p

(2) 필요에 따라 1억~3억 경남 지역에서 자금조달₩

(3) 자조 기금 조성 : 주식 참여 외에 자조 조직을 구성하여 자조기금 - 대출 규모와 연계

2) 외부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협력

(1) 대출 자금을 대출 받음.

(2) 매칭 자금조달 : 정부 정책(신재생에너지, 사회주택, 도시재생 등) 등의 사업을 지역에 시행할 때 연대기금 투입

(3)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규모가 큰 경우 연대기금 자금 인내 자본으로 참여

4) 공공 기금(경남사회적경제 기금) : 경남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자금 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수, **기금을 중개하는 방법에서 중장기적으로 위탁 운영 모색**

5) 온라인 플랫폼 비플러스와 협력 : 온라인 P2P금융을 통해 자금조달

6) 기타 : 서민금융진흥원 등

4-2 자금조달 방법(2) - 개별기업들 조달 방법

(생협의 경험 중심으로); 자금 조달 방법이 극히 제한

- 1) 출자금 : 가입 출자금 + 이용 출자금(매장이용 또는 공급 출자)
- 2) 조합원 상조회 ; 실업 때나 혼례, 상 때
- 3) 조합원채권 : 조합원에 의한 차입금
- 4) 목적 기금 :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자금 차입 - 송아지 입식 등
- 4) 내부 유보금 : 축적한 경영 잉여금
- 5) 수매선수금 : 조합원이 물품이용 선금
- 6) 가격안정기금 :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가 조성
- 7) 매장안정기금, 활동가 복지기금 ; 조합원들 중심 조성
- 8) 생산을 위한 자회사에 출자 : 조합원-직원 활동가 직접-간접 출자

5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업내용

5-1 핵심사업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조달 및 지원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창업, 성장, 규모화를 지원
- 경남의 사회적금융 전문 기관으로 성장
- 자금 대출과 함께 회계, 경영, 마케팅 등 종합 컨설팅 제공
- 경남의 당사자 조직 협의체들의 자조, 자립, 자치에 기여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교육 : 자금조달, 금융, 회계 등

5-2 현 사업 진행내용

(1) 대출 중 : 3개 기업 / 각 4천5백만 원 대출

(2) 대출 진행 건 : 2개 기업 / 각 1천만 원 총 2천만 원

(3) 자금확보 건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억5천만 원 중에 1억 원 받음. 1억5천은 1억원 80% 소진 때

○ 경남도의 기금은 현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함께 논의

(4) 상품개발 건

○ 비플러스와의 플랫폼 공유를 위한 준비 : 2021년 사업

6 사업목표

7-1 연차별 매출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자금	전체자금	641,000	1,530,000	2,530,000	4,010,000	5,500,000
	운영비	21,000	30,000	30,000	10,000	
	대출자금	620,000	1,500,000	2,500,000	4,000,000	5,500,000

- 2025년부터 온라인 P2P 목표(자본금 5억, 금융 경력 직원 등 조건)
- 2022년 손익분기점 넘는 것을 목표
-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 경남사회가치금융

7-2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 당사자 조직 이자 차액 지원 효과(연 이율 이자 인하)
- 재무 및 경영 컨설팅과 연계한 지원 마케팅

7 사업목표

7-3 연도별 추진계획

1년차

- 직원채용, 자금조달, 상품개발, 자금운용
 -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금 신청 진행 중
 - : 임팩트투자 비플러스의 플랫폼에 메뉴 형성 협의 계획
 -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사로 추진 중
- 교육훈련 : 전문가 양성, 당사자 조직들 대상 금융 및 재무 교육
-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 마련(사회적가치 추가)

2년차

- 참여 기업 확산과 자금 확대
- 온라인 P2P 경남형 자율적 운영(비플러스와 협력)
- 자금조달, 상품개발(상품 매출 연계 등), 자금운용 활성화
- 교육 훈련 지속 : 전문가 양성, 당사자 조직들 대상 금융 및 재무교육

3년차

- 참여 기업 증가와 그에 따른 출자금 증대로 내부 자금규모 확대
- 교육, 훈련 지속, 재무 컨설팅 진행
 - : 전문가 양성, 당사자 조직들 대상 금융 및 재무 교육, 컨설팅 진행
- 자금조달, 상품개발, 자금운용 자리매김
- 온라인 P2P 독자 운영 준비



7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8-1 조성 목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코자 함

8-2 배경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정책에 따라 기업수, 고용, 매출 규모 등 양적 성장 시기
 -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은 필수적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음**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측정 및 계량화 곤란
 - 보조금·출자금은 자기자본 인정 불가, 발생이윤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65%에 피해발생, 향후 금융수요 증가 예상

7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8-3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수요

○ 자금 조달 식정

- 경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주로 출자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 출자금(72.8%), 보조금(14.6%), 금융기관(5.0%), 특수관계인 차입(1.4%), 기타(6.2%)

-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반금융을 통한 외부 조달이 어려운 상황

=> 기타(76.1%(대출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음)) > 협동조합 금융기관(11.1%) > 일반은행(8.5%) > 비영리 단체(5.0%)

* 경남연구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유선 조사('20. 2. 10 - 2. 28) : 357개 대상

○ 자금 수요 및 규모

- 주요용도 : 인건비 등 운영자금(57.9%)과 시설자금(16.5%)

- 필요자금 : 주로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

- 평균 자금수요 : 9,456만원 정도(기업당), 총 자금수요 : 500억 원 내외 추정

7

경남사회적경제기금

8-4 조례 개요

- 조례 명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 조성액 : 15,000백만원(5년간) ※3,000백만원/연간
- 조성재원 : 도 일반회계 전출금 등
-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지원 등
- 운용방법 : 도 직영(수행기관 선정 기금운용)
- 주요 내용 :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지원
 -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감사합니다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Gyeongnam Social Value Finance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단체신협 특별위원회

사회적자본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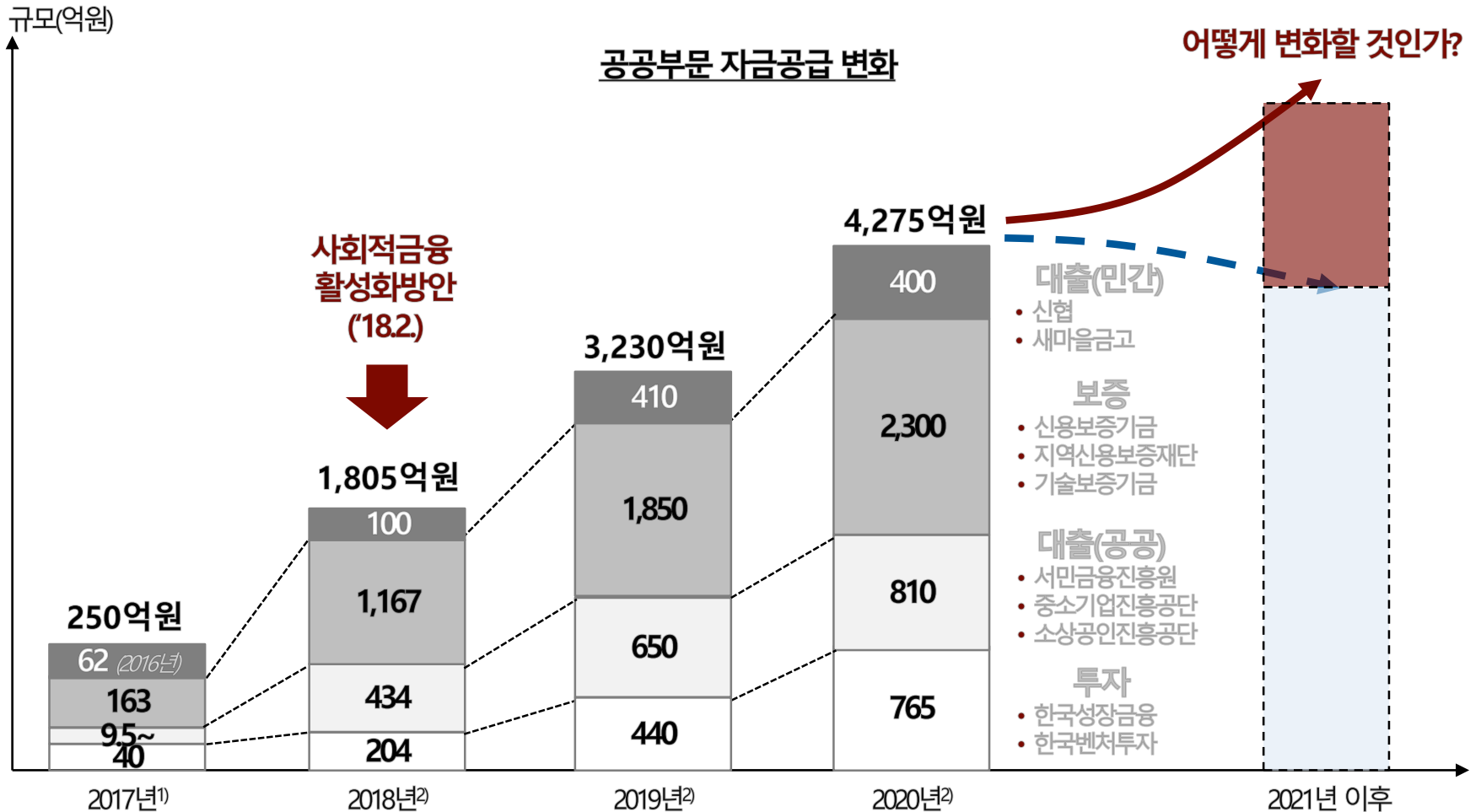
한국사회혁신금융

2021.1.21.

목차

- **사회적 금융 현황 및 과제**
-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금융
- 사회적 금융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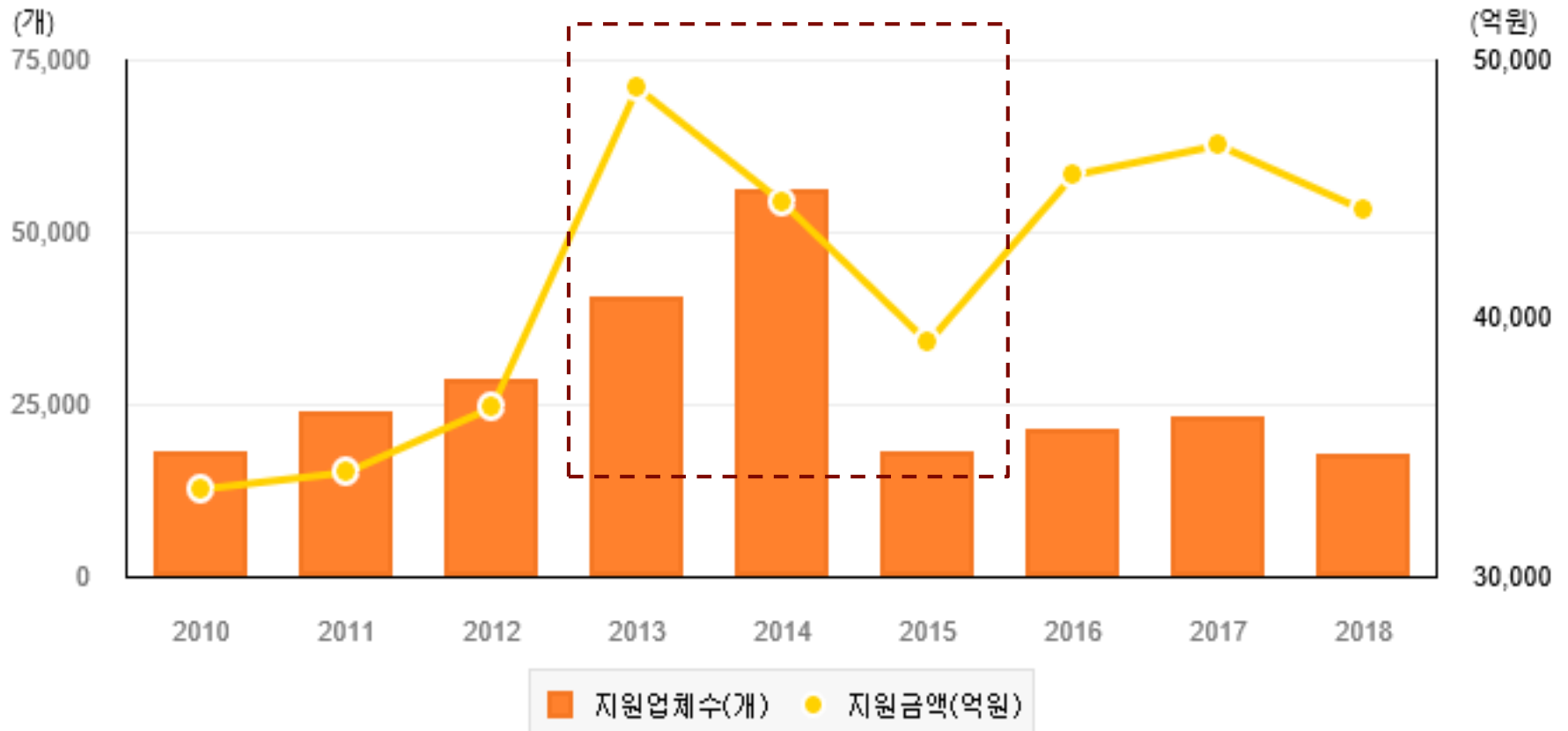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 1)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 자료 2)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1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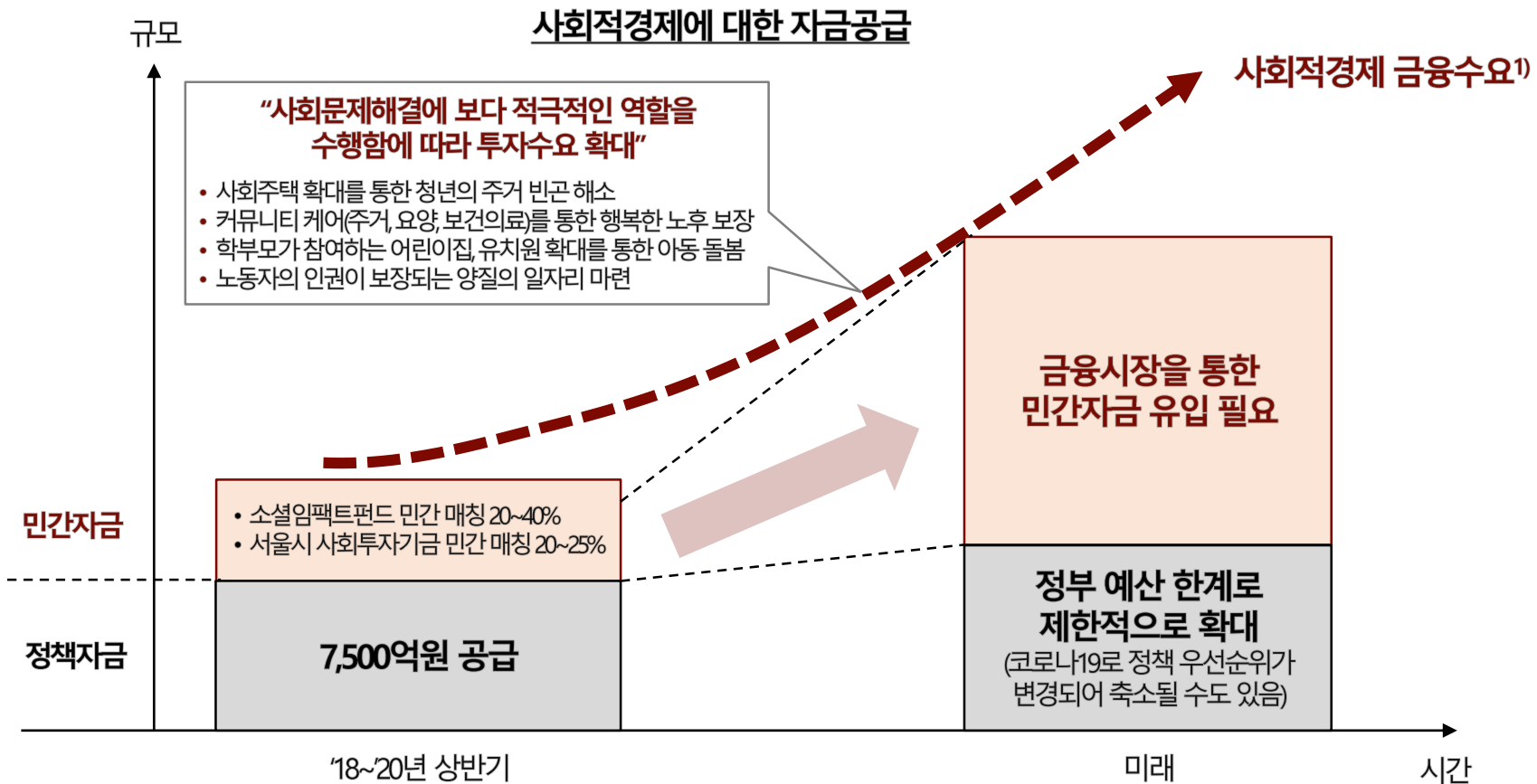
하지만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정책자금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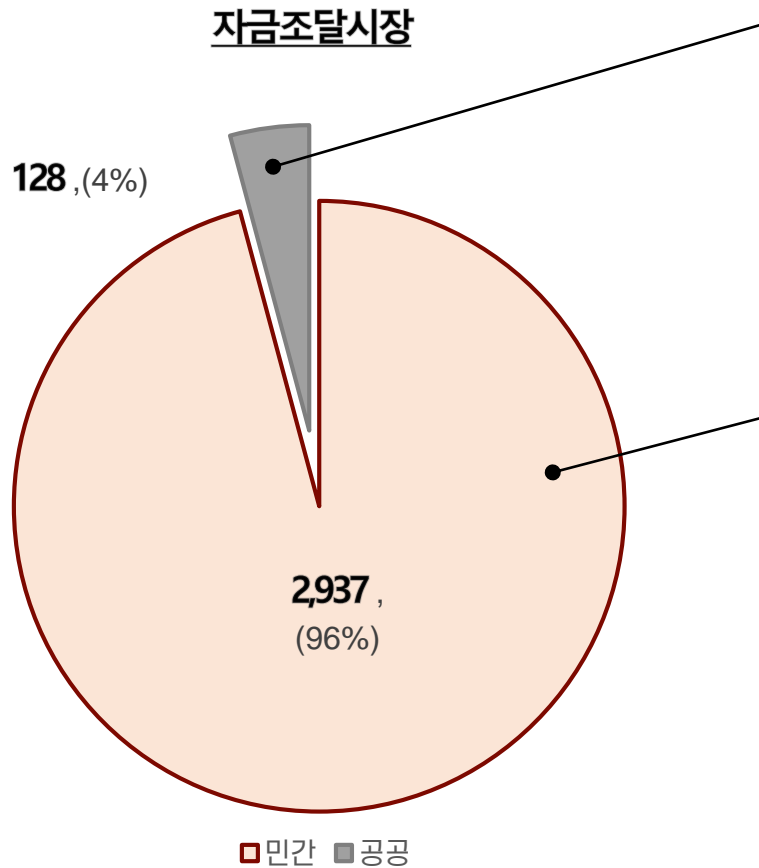
출처) 정책자금공급(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잔액(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자금공급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 1)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 평균의 65%의 22% 수준이며, 사회적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EU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체 노동인구 중 사회적경제에 노동인구 비율이 9%를 상회함(15)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는 공공 정책자금보다 훨씬 큽니다.



[공공] 8개 정책자금 운용기관 총자산 128조(4%, 20년 기준)

기관명	총자산	기관명	총자산
한국벤처투자	2	기술보증기금	22
한국성장금융	2	신용보증기금	5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서민금융진흥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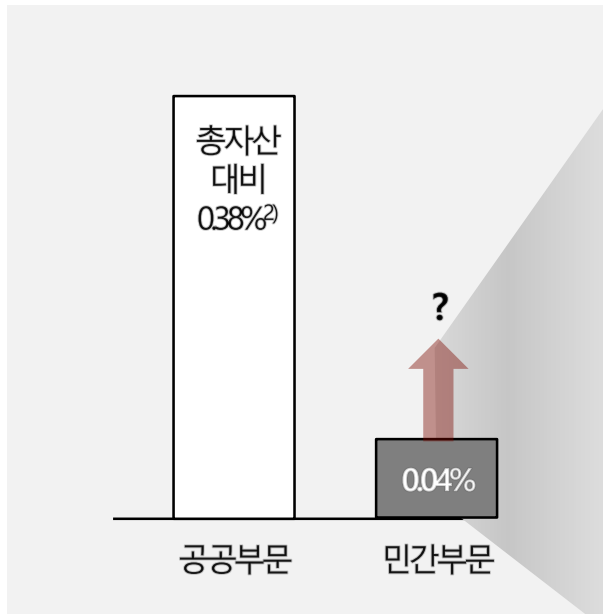
[민간] 13개 은행¹⁾ 총자산 2,937조(96%, 20년 기준)

회사명	총자산	회사명	총자산
기업은행	345	신협	104
광주은행	28	경남은행	48
수협	48	하나은행	421
농협	332	우리은행	390
대구은행	63	부산은행	71
신한은행	454	국민은행	434
		새마을금고	200

주 1) 2018~2019년 사회적경제에 1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 은행(상호금융기관)만 분석 대상에 포함 시킴
출처) 사회적금융협의회 분기별 발표자료 등

하지만 기존 은행들에게 사회적 금융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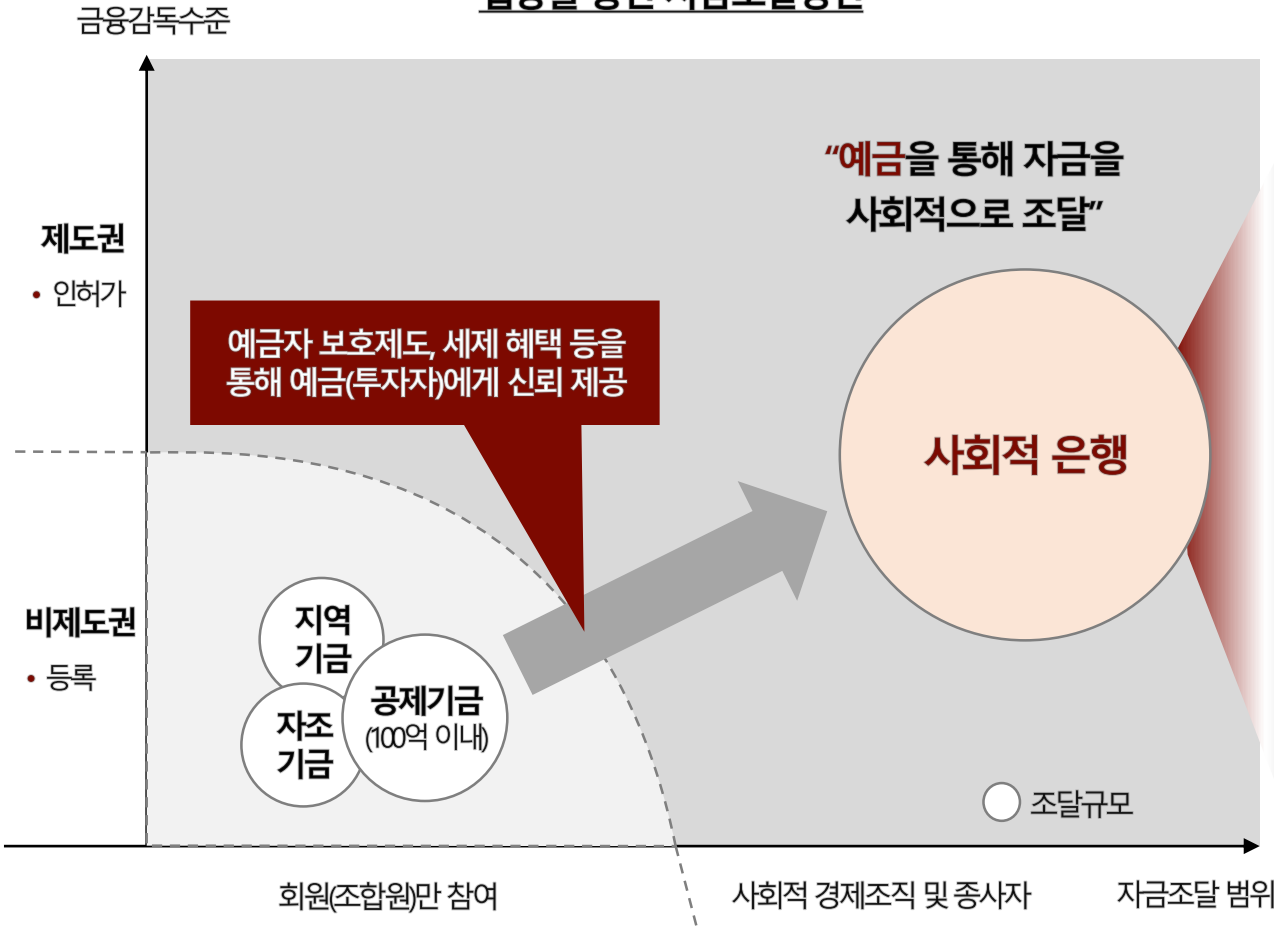


- 13개 은행의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액(18~19)은 1조 1,823억원이나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을 기반
 -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위주
 - 규모가 큰 사회적 경제기업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음
- 은행의 총자산 대비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액은 0.04%로서 **조직 내에서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어려움**
 -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10~1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임
- 기존 은행들이 사회적 경제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나 인센티브가 부족함**
 - 전문 심사역 양성, 담당 직원에 대한 사회적 경제 교육, 검증된 평가모형 개발 등 효과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예금 및 대출고객 중에서 사회적 경제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주 1)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 정의
 2) 8개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사회적경제 자금공급액(18~19년) 4948억원 / 20년 총자산 128조 7613억원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사회적 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사회적 경제 종사자 인터뷰²⁾

“협동조합은 자금조달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행을 고민해왔음. 그렇기에 본 제안이 반가웠음”
-협동조합 관계자-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은행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사회적 경제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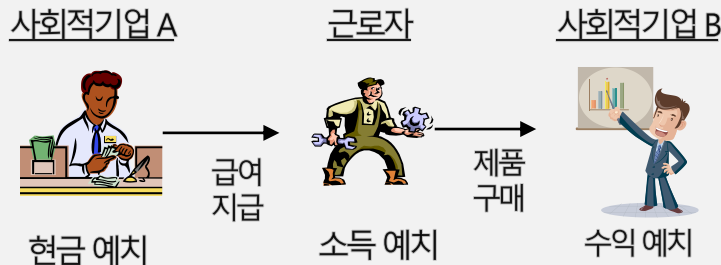
“사회적 은행은 사회적 금융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주제로 적절한 시점에 제안되었다고 생각함”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주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 및 전문가(43명, 2020.12.08 기준)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 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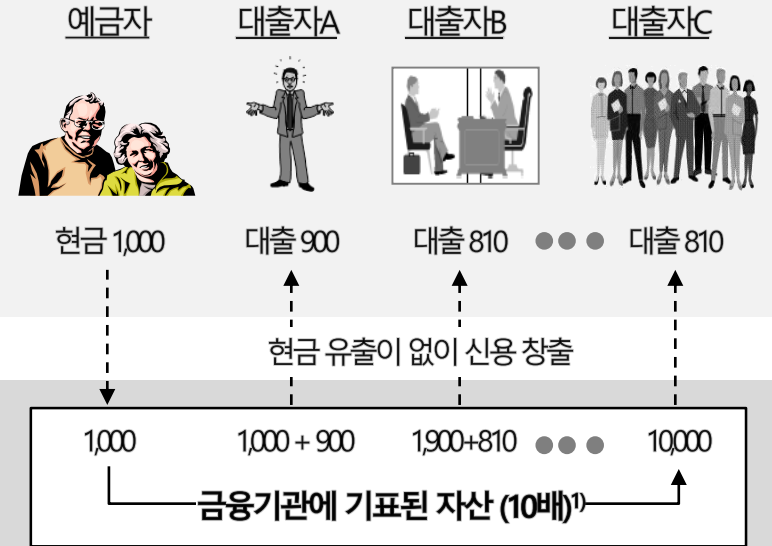
민간자본 축적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축적”



예금통화창출

“대출금이 예금주만 바뀌어 계속 예치된다면
N배 만큼 신용 창출 가능”



은행의 기능

주 1) 고객 계좌의 저축한 금액이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만큼 시장으로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을 예금통화를 창출한다고 표현하며 본 예시에서는 90%만 대출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지급준비율 10%)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민간 자본 축적 가속화

-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여 출자금을 조성하고, 주거래은행으로 활용(예금 유치)
- 중앙자활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정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중 계좌 유치

2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

- 진정성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심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역할 수행
- 상생, 호혜,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반자의 역할 수행

3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대중의 참여 기반 확대

- 사회적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함
- 플랫폼노동자,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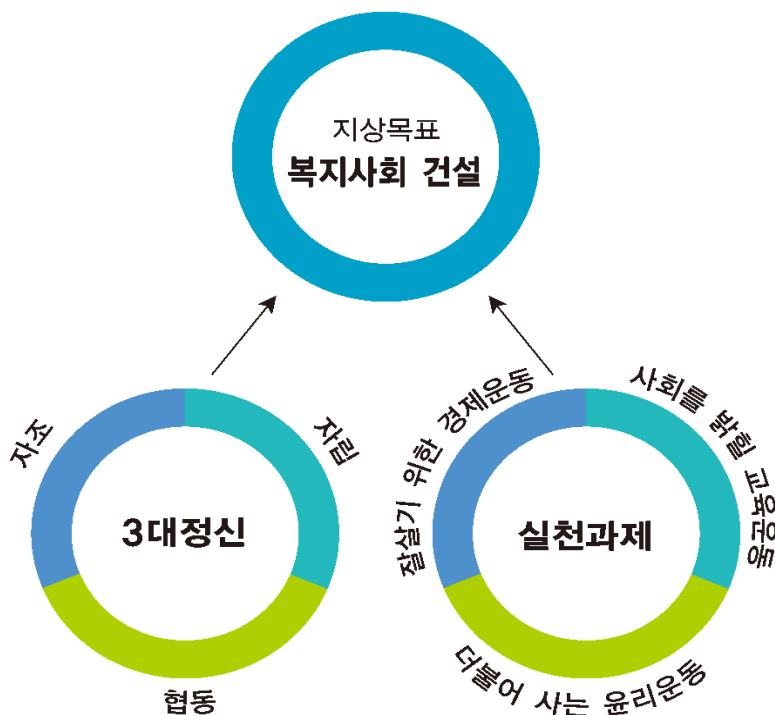
목차

- 사회적 금융 현황 및 과제
-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금융**
- 사회적 금융의 미래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은행을 만들어야 할까요?

철학적 배경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1. 사람 중심

조합원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근검절약저축을 장려하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 도시 서민, 중소 상공인 대출로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도우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의 산실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신용사회를 건설하고자 자발적으로 설립, 상향식으로 운영되어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합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문화의식 함양은 물론 올바른 시민 경제교육의 산실로 신협을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3. 나누고 서로 돕는 공동체 추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토로 지역 금융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 문화사업, 환경운동,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더불어 사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연대한다면 사회적 은행으로서 단체신협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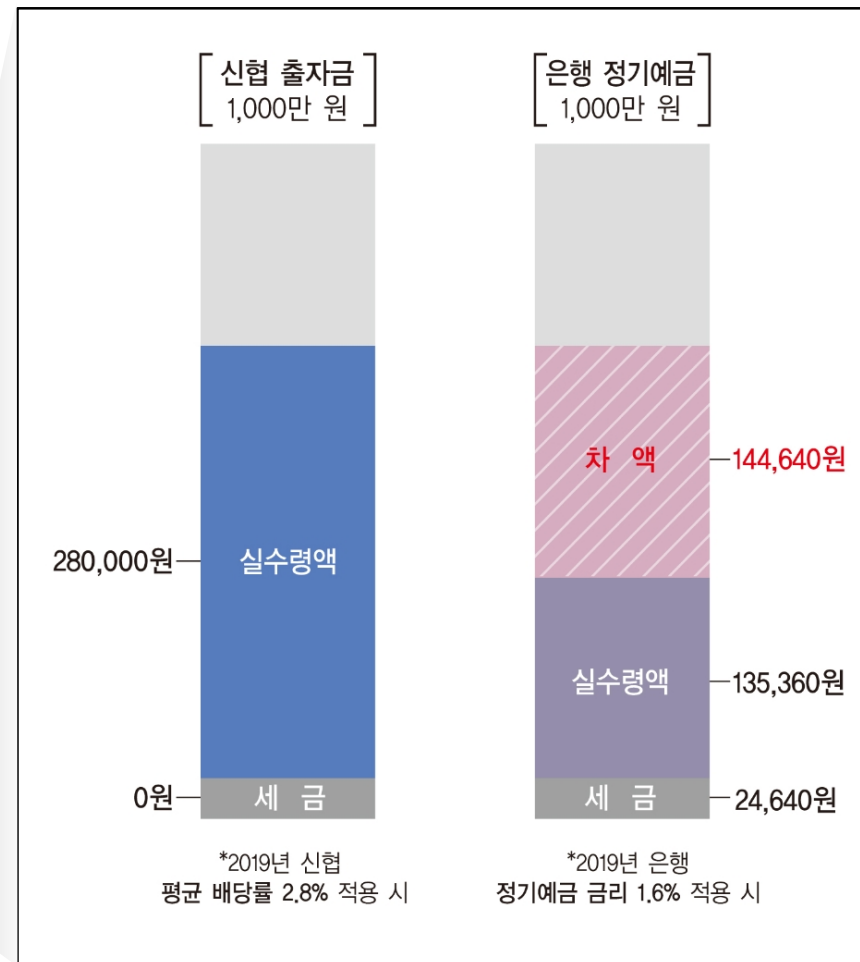
예금취급기관	가치 부합성	주요 고객군	설립 용이성 ¹⁾
신용협동조합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및 그의 가족 들이 모두 포함된 단체신협 설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신협 1억원 • 지역 신협 3억원
저축은행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만든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4~6등급 위주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 120억원 • 광역시 80억원 • 기타 40억원
인터넷 전문은행 (제1금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은행서비스 제공 (비대면 거래 의무화, 지점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리 신용대출(직장인 등) • 기업 상품 취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억원
은행 (제1금융권)	예금자를 보호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1~3등급 위주 •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1,000억원 • 지방은행 250억원

주 1) 설립자본금 기준

신협은 시중은행 대비 소득 증대 효과도 높기 때문에 자본 축적 및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이득

- 1 **출자금 배당을 통한 추가 수익 제공**
(2019년 신협 평균배당률 28%)
- 2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높은 이율**
(신협 1.74% > 은행 0.81%)¹⁾
- 3 **세제 혜택²⁾**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
- 4 **출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주 1) 신협 1년만기 정기예탁금 예금금리 1.74%, 은행 예금금리 0.81%(20년 7월, 한국은행)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근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¹⁾는 사단법인을 공동유대범위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 설립하고자 결의했습니다.

지역: 광역 8개 연합체 / 기초 1개 연합체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인천사회적경제협의회, [기초]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업종: 7개 영역 / 11개 연합체 / 28개 단체	
[시민사회] 1개 연합체: 한국YMCA전국연맹	
[금융/신협] 7개 단체: 경동신협, 논골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안중제일신협, 장안신협, 주민신협	
[금융/공제] 2개 연합체, 5개 단체: 재단법인 밴드,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전국주민협동연합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함께일하는재단	
[교육] 1개 연합체, 1개 단체: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돌봄·의료] 3개 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의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원순환] 1개 연합회: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지원조직] 3개 연합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15개 단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람과경제(충북), 사람과세상(경기), 사회적경제연구원(대전), 사회투자지원재단 살림(광주),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성공회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나무(전남), 커뮤니티와경제(대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SAPE넷지원센터(아이큐)	
유형: 2개 영역 7개 연합회	
[부문] 2개 연합체: 전국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소셜벤처] 1개 연합체: 임팩트얼라이언스	
[생협] 4개 연합체: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연합회	

주 1) 사회적 경제의 부문지역업종협의회를 아우르는 전국 네트워크로 2011년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2007년 발족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되어 2012년 창립 (20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상임대표 유영우)

사회적경제조직 및 종사자들이 참여한다면 규모 있는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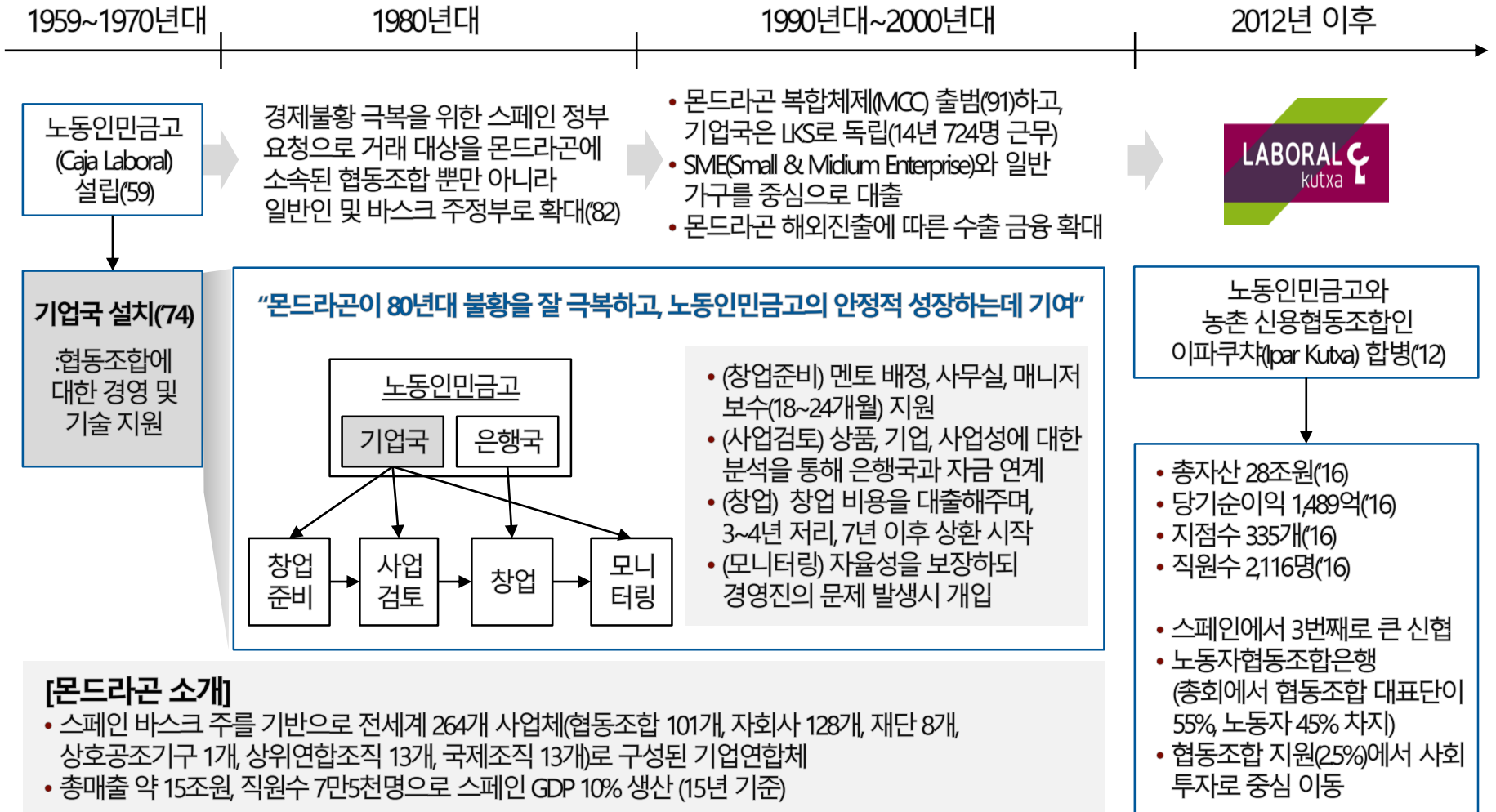
구분		추정 근거
[민간] (9천2백억원)	사회적 경제기업 (2천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¹⁾ = 8조147억 • (가정1)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자산 평잔은 매출의 10% 8천억원 = 8조147억 x 10% • (가정2)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예적금에서 25%가 신규 신탁으로 이관(주거래은행) 2천억원 = 8천억원 x 25%
	사회적 경제 종사자 (7천2백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1) 사회적 경제기업 판관비는 매출과 비슷 = 8조원 • (가정2) 사회적 경제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들의 급여는 매출의 75% 수준, 6조원 = 8조원 x 75% • (가정3) 종사자(가족 제외)의 평균 예금 잔액은 월급의 40%, 24조원 = 6조원 x 40% • (가정4)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예적금에서 30%가 신규 신탁으로 이관(급여 통장) 7천2백억 = 24조원 x 30%
[공공] 사회적 경제 정책자금 (7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정책자금 예치금 = 740억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578억원(20년 기준)의 30%인 170억원 - 서울시 510억, 경기도 400억원, 강원도 200억원(20년 기준) 등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예산은 1,500억원 수준이며 20%를 이관한다고 가정 300억원 - 지자체 사회적 경제기금이 1,300억원 수준이며 20%는 이관한다고 가정 260억원

주 1) 협동조합은 제 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기획재정부 2020.3), 인증사회적기업은 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한국노동연구원 2019.11), 마을기업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0.1),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촌공동체회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중장기발전방안(KDI 개발연구원, '18.9)

목차

- 사회적 금융 현황 및 과제
-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금융
- **사회적 금융의 미래**

몬드라곤의 성장에 노동인민금고(現 라보랄쿠차 협동조합은행)가 있었듯이 우리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대출에 집중하는 기존 신탁과 달리 기업금융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운용 철학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와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조합원 및 수신고가 늘고,
기업 재투자가 증가할 것임

1. 현장에 알맞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 금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면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함. 가령, 시장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설정하되 사회적가치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를 할인하는 상품 개발 가능
- 사회적 경제에 알맞은 금융상품개발, 위험관리 체계 등을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우선 출자)를 통해 인내자본으로서 역할 수행
- 택시회사 인수, 시민자산화, 사회주택 지원 등 규모 있는 사회적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적 성과 창출

2. 부대서비스 및 기업금융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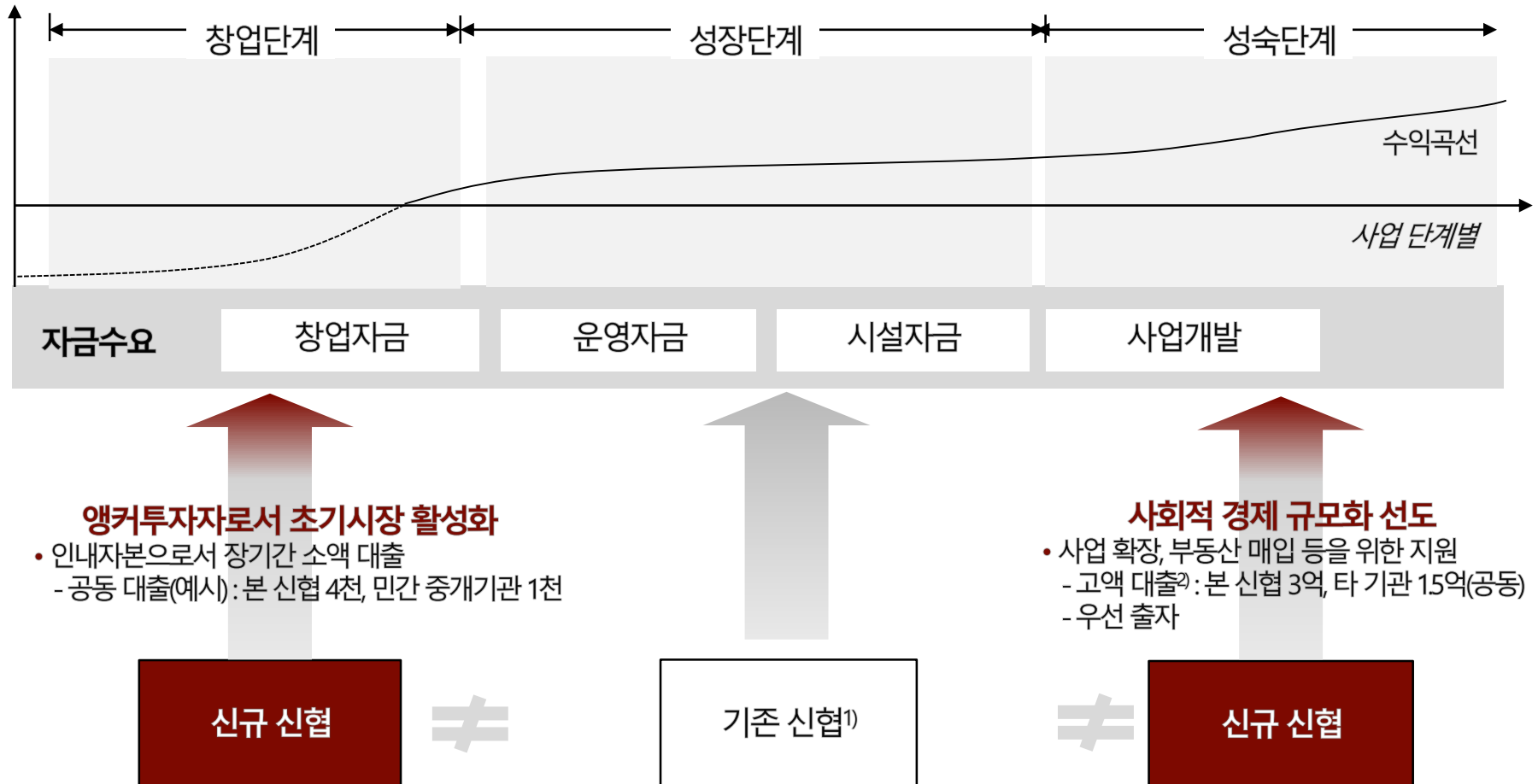
- 신탁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생명공제, 손해 공제 상품을 활용하여 기업 및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 금융상품 제공
- 타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종사자 포함)이 관심있는 주택청약, 퇴직연금, 보험(실손, 영업배상), 방카슈랑스, 이해보증보험 등을 저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함

3.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신탁중앙회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서비스 제공
- 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함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초기 기업에는 앵커투자자로서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규모 있는 기업에는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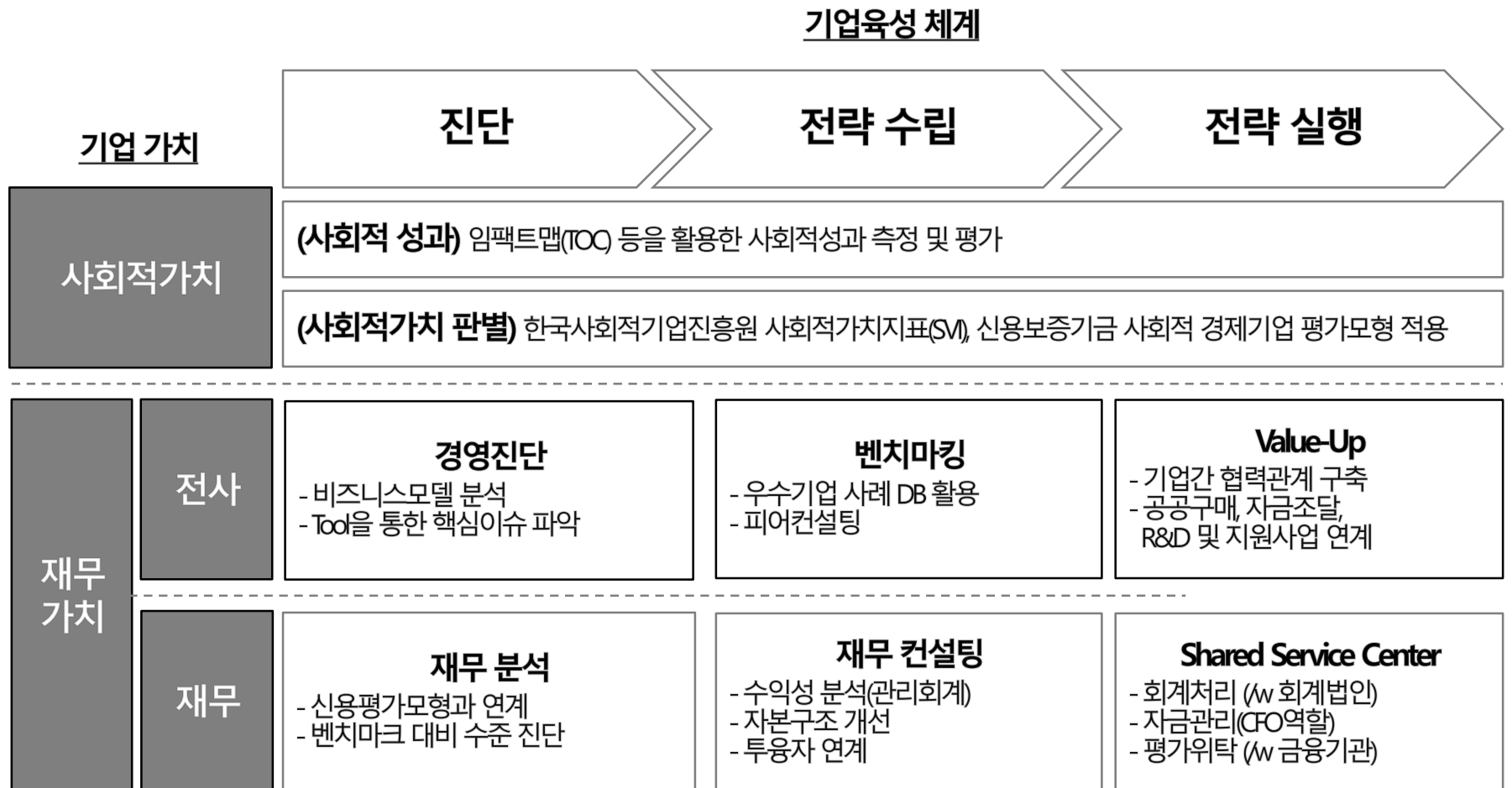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



주 1) 동작신탁, 주민신탁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신탁과 시범적으로 상생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신탁 대출한도 기준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령 자산이 1,000억, 자기자본 80억원이면 최대 16억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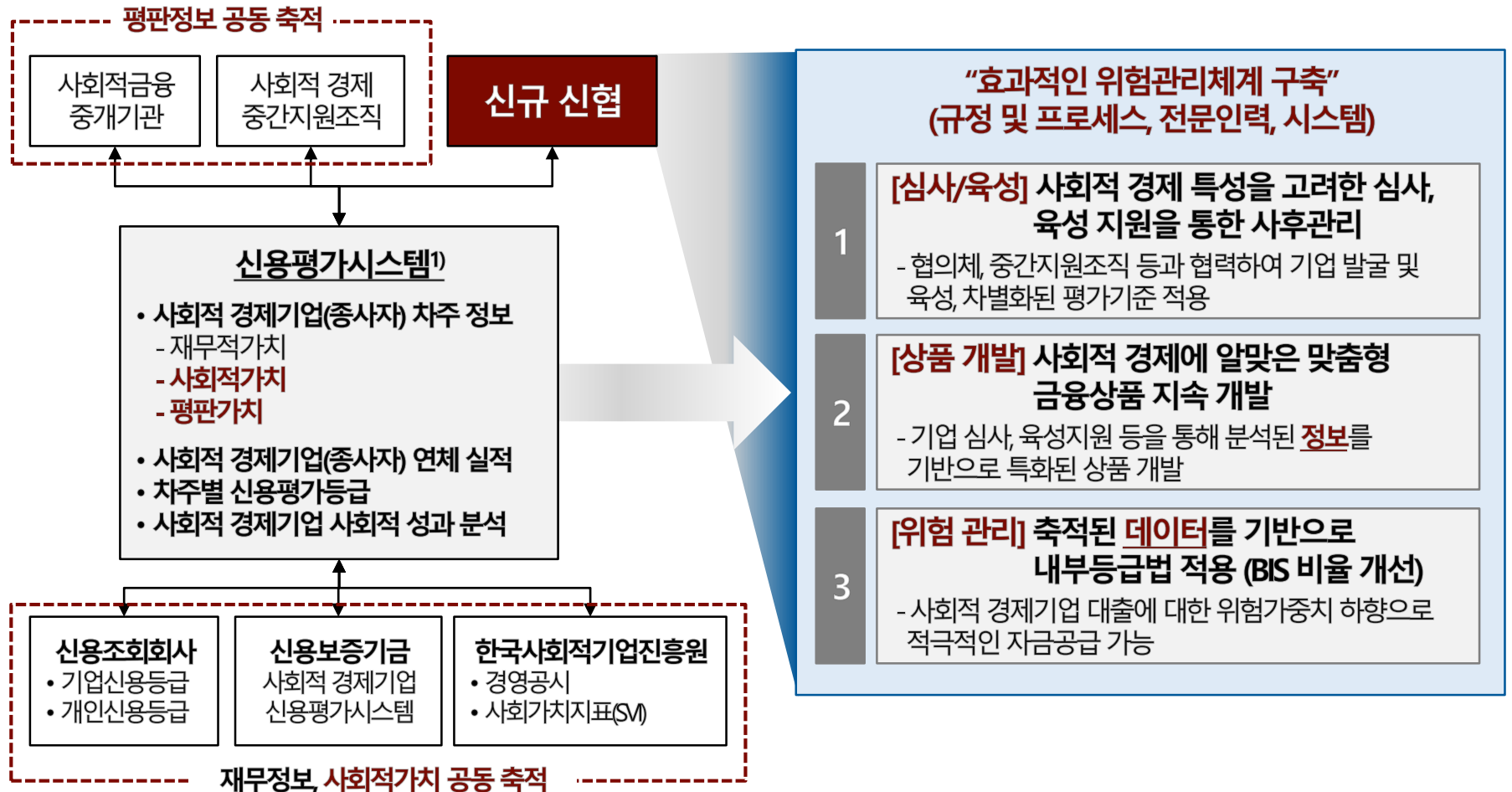
기업육성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예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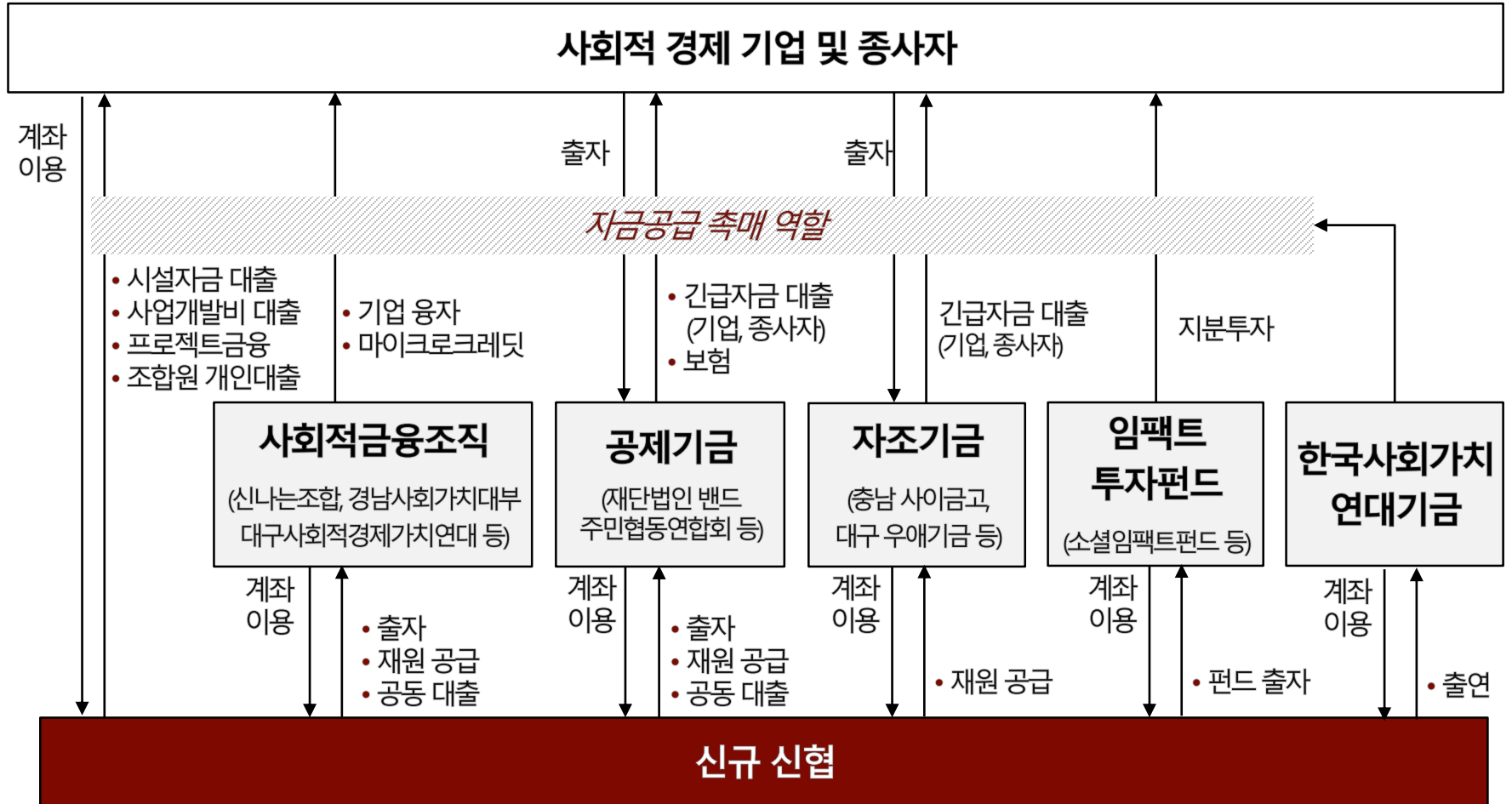
참고) 신탁중앙회 본부와 협력하여 기업육성센터 운영 (역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발/운영)

타 기관과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사회적 경제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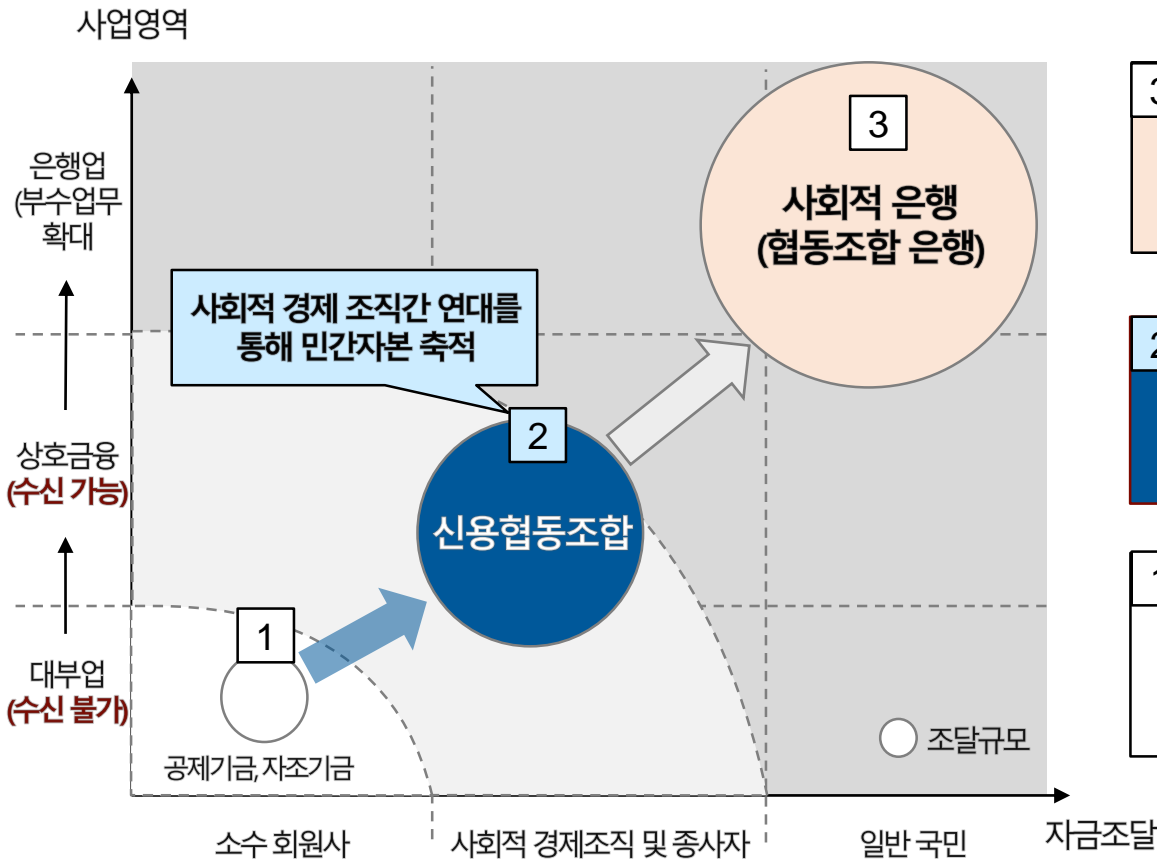


주 1)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회원단체인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서울시 혁신형사업(17~18)을 통해 독자적인 기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19)한 바가 있음. 본 신탁 설립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함께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단체 신협은 사회적 은행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단계적인 접근 필요

- 3

사회적 은행(협동조합은행)

설립에 기여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사회적 은행 설립
- 2

사회적 경제기업에 특화된

신협 설립에 기여

사회적 경제 내 자본을 규모화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
- 1

우호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소규모 민간 자본 축적

커뮤니티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 비대칭성, 거래비용을 줄이며 효과적으로 자금 운영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회적 은행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협을 설립합니다.”

- 1) 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서민들이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섭니다. **(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 2) 신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신용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신협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 상향식으로 운영되어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문화의식 함양은 물론 올바른 시민 경제교육을 제공합니다. **(21세기형 협동조합 이상적 모델 구현)**
- 3) 신협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토로 지역 금융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장학 사업, 문화 사업, 환경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더불어 사는 나눔의 신협정신을 실천합니다. **(나누고 서로 돕는 공동체)**

“단체신협은 우리의 협동과 연대의 실험장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입니다.”

연대와 협동 그것의 첫 발은 자주적인 문제해결 노력이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對 사회적 협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게 됨을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참여자 공동의 염원을 실현하는 인적 결사체입니다.

사회적 금융 한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결사 수준을 높여 우리 스스로 염원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업종·부문을 뛰어 넘는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사회적 경제이고, 이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동의 경험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방안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사회적 금융 현황

사회적금융 자원 확보



사회적금융 절대적 공급량 부족

금융 접근성 제고



자금 조달 경로 다양화

사회가치 성과 측정·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을 공급합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사회적 가치

사업역량

지역 네트워크

지역·업종·부문 단위로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기관으로 재단이 사회적경제조직 및 임팩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는 모든 기관으로 정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투융자 운용 세칙)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신협 등 다양한 법인격으로 활동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중개기관 육성 주요 지원내용

투융자 자원 공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을 원칙

① 연계자원 조달 지원

필요시 후순위, 선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중개 기관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자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 제공

② 자기자본 확충, 운전자금 지원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재정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자본금투자,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역·업종별 중개기관 육성

중개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발굴·육성

① 지역 중개기관 육성

지자체 기금 조성, 지역 사회적 금융 공급체계 정비, 지역 중개 기관 설립·설치 지원으로 사회적금융 기반 지역개발 촉진

② 연합조직 육성

사회주택, 햇빛발전, 의료사협, 노동공제 등 업종별 자조기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중개기관은 금융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지역, 자조 기반 여부, 자금공급방식, 중개기관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고려

유형별 육성계획

지역단위 중개기관 육성

① 대출형 중개기관

광역에 1개 육성 후 사회적금융의 수요·공급량을 고려하여 기초지역으로 확대

② 투자형 중개기관

소셜벤처 및 임팩트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 자금조달, 수익구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지원

전국단위 중개기관 육성

① 대출형 중개기관

중개기관의 지역확산,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목적이 있는 경우 지원

② 투자형 중개기관

임팩트 분야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문 중개기관에 한하여 육성 지원

자조기반 중개기관 육성

(비자조 기반 중개기관도 육성 대상에 포함하되)
자조기반 중개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비자조기반 중개기관을 자조기반 중개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인센티브 방안: 투·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경영지원 (교육, 컨설팅, 연구), 중개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유형별 육성계획

지역단위 자조기반 중개기관은 자조기금의 규모 증가에 1:1 매칭하여
5년간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투·융자 지원

	내용	대상
①	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사업자금 투·융자	모든 육성대상 중개기관
②	중개기관의 운영자금 투·융자	
③	자원 연계 (법률전문기관, 인력공급 전문기관 등)	
④	경영 지원 (교육, 컨설팅, 연구, 설립 인큐베이팅 등)	육성대상 중 지역단위 신규설립 또는 자조기반 중개기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20년 중개기관 통한 투융자 실행, 승수효과 창출

SVS 기금은 민간투자금 및 모태펀드·지자체기금 등의 정책자금과 혼합되어
총 1,015.1억 규모로 사회적경제 현장에 공급 (2019-2020 누적)

- ‘19년 투융자 약정액 123.1억을 포함하는 누적 투융자 약정액은 193.84억원
- SVS 기금은 민간 투자액 기준 1.4배, 결성총액 기준 5.2배의 승수효과를 창출

전체 투융자 26건 가운데 중개기관을 통한 집행은 18건

- 직접 투융자 7건 중 2건은 중개기관 육성 투융자, 5건은 사회목적 프로젝트 투융자
- 전체 투융자 금액에서 직접 투융자 비중은 18.5% (35.34억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20년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총 72개에 자금을 공급

- 비수도권 대출기업 수 52개 (총 대출기업 수 대비 72%) 자금 공급
- 자활기업 대출기업 수 23개 (총 대출기업 수 대비 30%) 자금 공급
- 누적 대출금액 : 5,134백만원 (비수도권 누적 대출금액 : 2,960백만원)

신나는조합

- 지원액 : 총 1,500백만원 대출 (6년)
- 중개기관과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업 및 대출사업의 노하우 전수로 전문가양성 기여

재단법인 밴드

- 지원액 : 총 1,500백만원 대출 (6년)
- 사회적경제기업 공제사업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공급으로 자조기금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확산 기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지원액 : 총 1,400백만원 대출 (4년)
- 자활기업에 특화된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접근성이 가장 낮은 자활기업의 수요 기반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 기여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20년 중개기관 운영자금 투융자

경기도 SIB 운영기관 단기운영자금 대출

단기운영자금 공급으로 운영기관 경영 안정성 및
지자체 SIB 프로젝트 운영 안정성 동시 제고

접근
차별성

SIB 운영기관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의 기존 성과와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단기 운영자금 대출 실행

- 지원액: 총 5,000만원 대출
- 운영기관: (주)한국사회혁신금융

경남지역 중개기관 설립자금 투자

지역 사회적금융 육성을 통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기반조성 도모와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접근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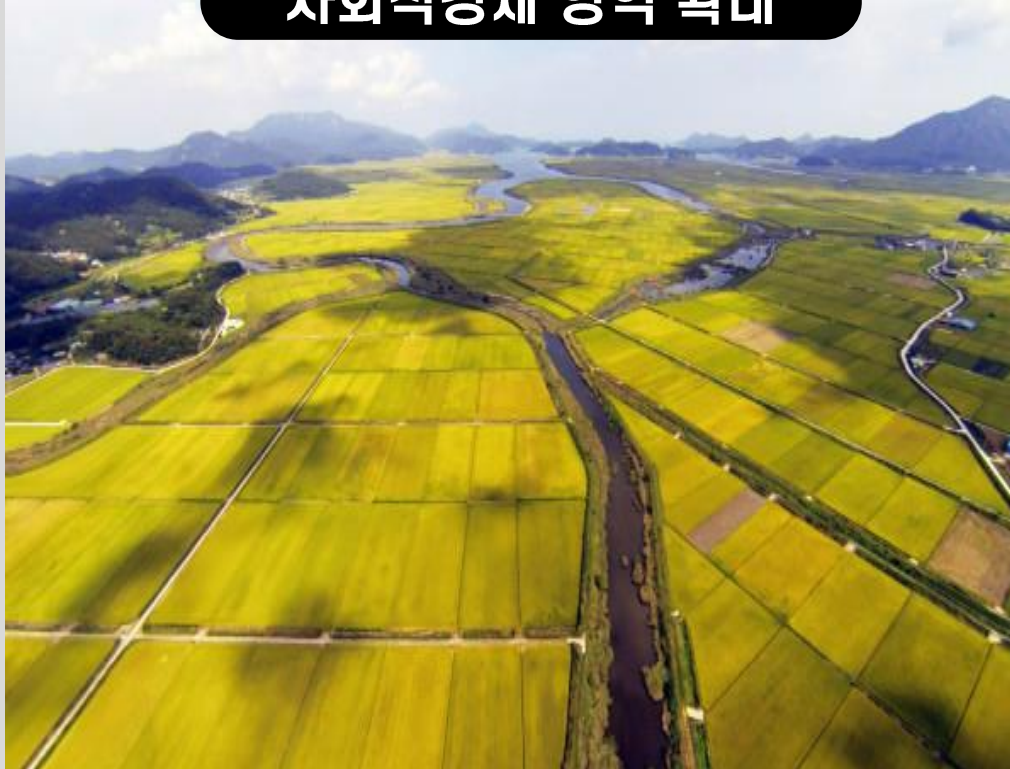
지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실행

- 지원액: 총 1,000만원 출자(대출)
- 운영기관: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회적 금융 향후과제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사회적금융 평가 시스템 확충
금융 수요 예측

금융 공급(채널) 확대
지역 및 민간(중개기관 등) 역량 강화

제도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민민, 민관협력 강화
자생력, 지속가능성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및 제도화 고려 사항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및 제도화 고려사항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기본 관점

- 사회적금융과 전통적인 금융의 관계
 - 사회적금융은 금융의 본질에 충실하되, 금융의 힘을 발휘해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 금융
 - 이 점에서 사회적금융은 전통적 금융의 원리에 반하는 관제금융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금융이 사회의 발전 및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 다시 시민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
 - 사회적금융의 노력과 실천은 금융 전반의 기풍(ethos)을 진작할 것이며, 금융 본연의 역할에 다시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전통적인 금융에도 제공할 것
 -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금융과 공공, 우리 사회 전반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이자, 사회적금융 참여자들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마음가짐
- 사회적금융의 참여자들에 거는 기대
 - **금융의 본질과 목적**에 주목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직업적 보람을 느끼며, 그 기풍을 은행이나 투자금융사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참여자들에까지 전파하는 주체

그렇다면 금융의 본질은?

- 전통적으로 금융은 기능에 의해 정의
 - "금융의 핵심 기능은 가계와 기업의 저축을 촉진하고, 이들 자금을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배분하며, 리스크를 관리 및 분배하고, 지급결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 금융에 관한 로버트 실러 교수의 정의(Finance and The Good Society, 2012)
 - "가장 넓은 의미에서, **금융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물 제공의 과학(science of goal architecture)이다.** 즉, **일련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장치들의 틀을 제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산들을 관리하고 후견할 구조를 짜는 과학인 것이다.** 이때의 목표는 [중세시대 수십년에 걸친 성당의 건설]·대학등록금 마련·안락한 노후설계·식당 창업·회사의 최신설비 도입·사회보장제도 도입·달나라 여행 등 매우 다양하다. **일단 목표가 구체화되면, 당사자들은 적절한 금융수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조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구현하게 되었으며, 그 기술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

금융이 좋은 도구가 되려면?

- 이처럼 금융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이며, 그러한 목표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산을 보호·보전하기 위한 후견과 관리(stewardship)를 제공하는 활동
 - 이때 **금융에 의해 가능하게 된 목표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깃들어 있는 것들**이다. 각자의 직업적 관심과 가족의 희망과 사업적 야심과 문화적 갈망과 사회의 이상을 반영
- 금융 그 자체는 목표가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금융은 목표를 함축하지 않는다
 - 금융 그 자체는 돈을 버는 것이나 이익을 남기는 것과는 무관
 - **금융은 '기능적' 과학**인데, 이는 다른 목표들, 곧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
- 한 사회의 금융기관들이 그 사회의 목표 및 이상들과 더 잘 정렬될수록, 사회는 더 강력해지고 더 성공하게 될 것
 - 그러한 메커니즘이 실패하면, 금융은 목표를 뒤집거나 파괴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현상
 - 그러나 금융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높은 수준의 번영을 가능케 할 고유한 잠재력 내재

딜메이킹으로서의 금융

- 의미 있는 목표의 달성 및 그 달성에 필요한 자산들의 후견 및 관리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 그러려면 그들의 정보를 한 군데 합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
 -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고, 의료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성당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시의 지하철을 건설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금융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에 안심하고 자신의 돈을 맡길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모종의 보상도 약속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금융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은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 곧 딜메이킹(dealmaking)**
 - 이는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시스템의 구조를 짜고, 이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개인들의 다른 목표들이 하나로 수렴되도록 만들어주는 활동 => 공학+인간학
 - 지급·대출·담보·주식·인센티브 옵션·출구전략의 구조화 등 금융장치들은 이들 거래의 표면적인 요인들에 불과
 - 딜메이킹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이끌어낼 금융장치들을 촉진시키는 활동
- 이때, 모든 계약 당사자들은 목표를 수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합의과정에 함께 한 타인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실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최선의 정보가 제안하는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 금융은 이러한 활동을 조정하고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개입함으로써 공동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역할도 담당

그렇다면 사회적금융은?

- 금융의 본질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조물 제공(goal architecture)+자산의 후견 및 관리(stewardship)이며, 이는 딜메이킹(dealmaking)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확인
- 사회적금융은 그동안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금융의 폭주 속에서 등한시되었던 이러한 금융의 본질을 다시금 충실히 구현하려는 시도이자, 공동선의 달성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금융
 - 사회적금융은 공동선의 달성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표(goal)로 한 **사회적 기업가나 공익활동가들**에게 고유한 해법(architecture/solution)을 제공하고, 이 목표에 공감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한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들**을 대신해 그들의 자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며 (stewardship), 이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을 조율해가며 공동의 목표가 종결(finis)될 때까지 계약의 전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활동(dealmaking)**
- **전통적 금융**이 각자의 선택과 공동의 목표가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조한다면, **사회적금융**은 인센티브에 더해 목적·가치·윤리 등 내적 동기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
 - 인센티브와 내적동기가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회적금융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사회적금융의 어려움과 과제

- 사회적금융은 일반 금융에 비해 Dealmaking이 훨씬 어렵다
 - 자금수요자 측면
 - 사회적경제 사업체는 사업 확대에 따른 수익 증대 기대가 크지 않은 관계로 차입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이나 재단 기부금을 선호
 - 자금을 빌리려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 비해 담보나 보증이 부족하며 업력이 길지 않아 사업성을 입증하기도 곤란
 - 자금공급자 측면
 -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위험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돈을 사회적경제 사업체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 확실한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는 은행이나 일확천금의 기회가 열려 있는 유가증권 투자와의 경쟁이 어렵다
- 과제
 - 자금수요자, 곧 사회적경제 사업체가 설정한 목표(goal)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잘 평가할 수 있을까, 자금수요자의 원금 상환 능력을 어떻게 제고하거나 보강할 수 있을까?
 - 자금공급자, 곧 사회적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딜메이킹의 주체인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과 덕성과 기풍을 어떻게 높이고 진작시킬 것인가?

사회적 투자자의 확대가 핵심 관건

- 사회적 투자자는 공공투자자·자선투자자·영리투자자·당사자투자자·시민투자자 등으로 구분
 - 이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 대한 자금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수익 그리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근거해 사회적금융의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데, 투자 목적·기대 이익·위험 감내도가 서로 상이
- **공공투자자**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대규모기금을 조성해 촉매자본을 제공하고 법·제도 인프라도 마련
- 민간 공익재단 등 **자선투자자**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촉매자본 및 초기 자본 등의 마중물을 제공
- **영리투자자**는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개인 자산가·연기금·전통적 금융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
 - 낮은 기대수익과 높은 예상위험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지만, 일단 유입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투자자들
- **당사자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사업상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조자금을 만들어 운영
- **시민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금전적 자본 제공을 통해 그 활동에 동참하거나 후원하려는 투자자들
 -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높은 위험까지 감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

촉매자본의 중요성

-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함에도 외부성·비배제성·비경합성·이용자의 지불능력 결여 등으로 인해 그 사회적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직면하며 투자자가 기대하는 재무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 이러한 사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자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은 높은 손실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이들의 자금유입이나 활동을 지속시키려면,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 촉매자본은 손실부담 자본(First loss capital)을 제공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나 사회적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최소한도의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투자의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자본
 - 촉매자본은 손실부담, 후순위 배당 등을 통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다른 민간 투자자들을 사회적 투자자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
 - 미국의 CDFI 펀드와 BSC이 담당했던 역할이 바로 그것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중요성

- 첫째,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정부의 지원금융·민간재단의 후원금융·당사자의 자조금융·금융투자자의 영리금융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이들의 고유한 자금 공급 목적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의 자금유입을 확대하고 사회적금융의 규모 증대 가능
 - 이때, 정부와 민간재단은 자신이 자금이 좋은 일자리의 제공·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들은 일차적으로 자조금융을 통해 자금수요의 해결을 모색하되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충당하기를 원하며, 금융투자자들은 시장금리 수준의 투자수익을 기대
 - 이들은 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도매형 중개기관은 목적·위험 감내·기대 수익률 등이 다양한 여러 자금을 모아 혁신적 금융수단 및 거래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자금공급자들의 목적을 충족 가능
- 둘째,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조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
 -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의 다양한 자금수요 특성과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자금운용 특성을 정합적으로 연계할 종합적인 금융정보시스템 및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 중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자조기금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협력사업을 벌이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 셋째, 여러 개의 금융수단을 결합하거나 펀드구조를 중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자금공급자들과 다양한 자금수요자들의 고유한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금융수단 및 거래구조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전파하는 것도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
 - 이러한 금융수단을 통해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규모 확대를 위한 대 규모 자금조달이 가능. 이 경우, 금융수단을 설계하고 다양한 공급주체들을 참여시켜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업무는 개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보다는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더 용이하게 수행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은행

-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되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재단의 촉매자본 제공이나 금융권의 임팩트 투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호응을 얻고 시민들의 자금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사회적금융을 펼치고 있는 지역 신탁들에 예금을 하거나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실정
-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사회적투자를 늘리고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가능할 것
 - 첫째, 노조와 같은 조직화된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노조·사회적경제 연대기금의 설립 모색
 - 둘째, 지역신탁들이 사회적금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런 지역신탁들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 셋째, 크라우드펀딩이나 인터넷은행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플랫폼에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예금·투자과 투·융자 상품이 출시
 - 넷째, 이탈리아의 윤리은행이나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 독일의 GLS은행과 같은 사회적은행의 설립이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도될 경우, 법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등을 적극 지원 필요

몇 가지 질문(1)

- 2019년 12월 발표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사회적경제정책 모니터 보고서, 2020년 3월 발표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
- 첫째, 공공부문 중심 자금공급은 확대되었으나 자금수요에 비해 여전히 과소공급되고 있는가? **시중은행 등의 자금공급 확대가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 사회적경제 영역이 시중은행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시중은행과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는? 사회적금융의 에토스나 덕성을 시중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으로 어떻게 전파시킬 수 있는가?
- 둘째, "민간 기금의 조성 촉진을 기관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소규모 중개기관의 역할 부재 현상**을 유발, 유사기관과의 역할 충돌로 질서 교란, **개별 민간단체의 사회공헌기금 유입 축소** 유발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과거 미소금융재단**의 등장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의 자금은 급감했던 반면 미소금융재단은 본연의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
 - 자금조성 및 배분, 도매형 사회적금융기관과 소매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업관계의 형식 및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몇 가지 질문(2)

- 셋째,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가? 중앙정부 주도의 자금공급 확대 정책이 지자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는가? **민간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을 약화되거나 역량 구축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가?**
 -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정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생태계조성은 미흡했다. **지나친 정부주도는 민간이 정부에 끌려가면서 역량을 구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 및 역할분담의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철되어야 하는가?
- 넷째,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도의 부족함은 있겠지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 사회적금융기관이 정부.공공기관.영리금융기관.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협업은 잘 되고 있는가?** 주체별, 내용별, 기대효과, 현황 및 평가와 관련해 정리된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질문(3)

- 다섯째, 전통적인 대출중심 중개기관과 유가증권 중심 임팩트투자로의 분화가 본격화되었는가? 앞으로 후자의 상대적 규모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가? 이는 바람직한 현상인가?
 - 금융의 본질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물 제공이고 딜메이킹이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임팩트투자가 전통적인 대출방식보다는 더 금융의 본질을 잘 구현하는 것 아닌가?
 - 사업 아이디어와 자금수요가 있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게 대출방식의 전통적 사회적 금융의 입장인 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레이어와 사업모델을 찾아서 후견하자는 게 임팩트투자의 접근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 임팩트투자는 유가증권-자본시장 흐름의 특징인 극단적 수익성 추구나 리스크 감수 등의 폐해를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는가?
 - 임팩트펀드가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 법인 유형에 따른 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력을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대출 중심의 전통적 사회적금융과 임팩트투자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

- 사회적금융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효과 -

사회
문제



지속
해결



균형
사회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210121 사회적금융포럼)

■ 사회적금융의 생태계와 지향지점

시혜/자선의
사회적경제

돈 버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금융의 역할

경쟁/지속적
사회적경제

수요

생태계

법률

상품

= 제도기반

공급

정부역할
자생능력
투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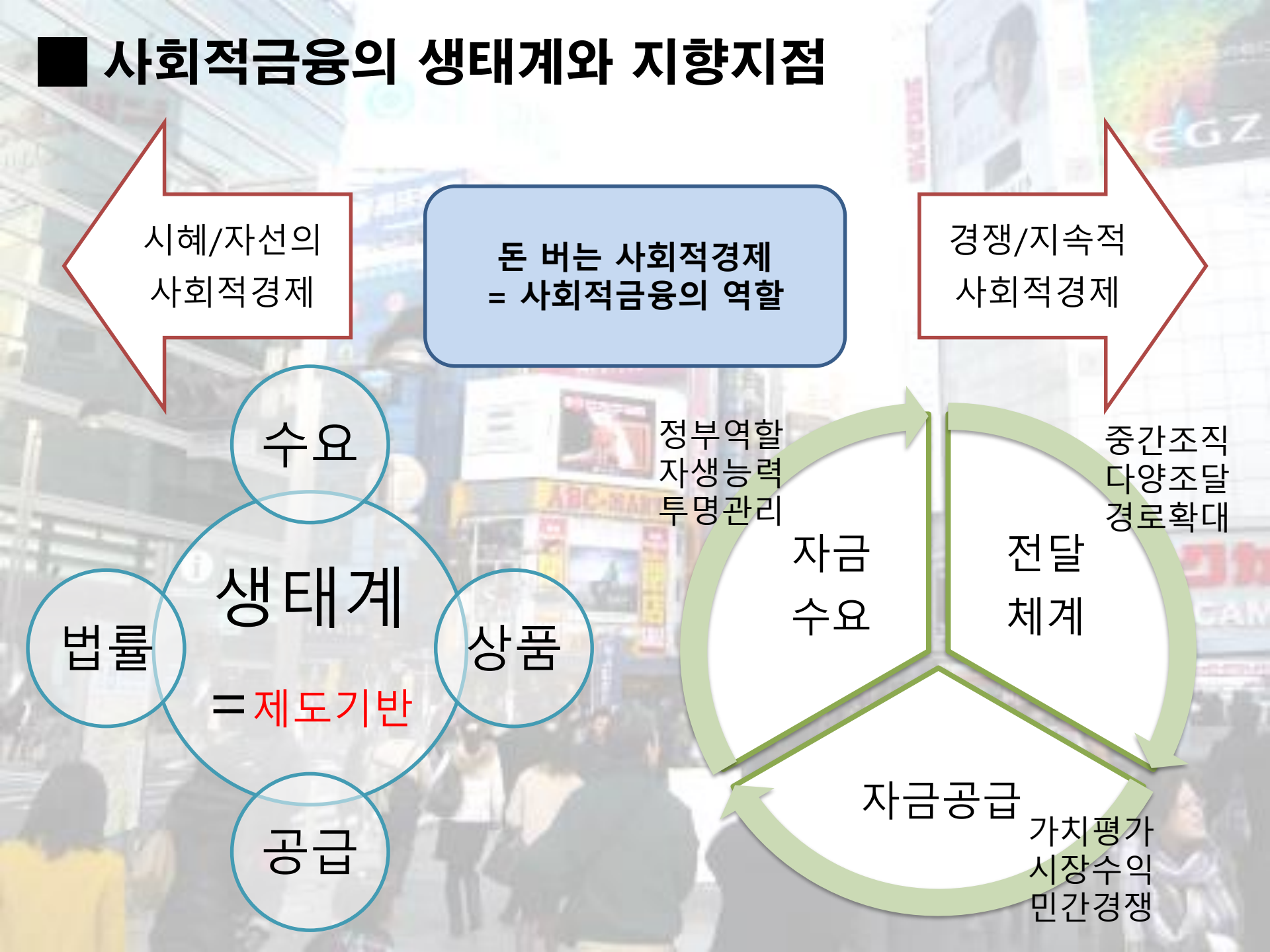
자금
수요

중간조직
다양조달
경로확대

전달
체계

자금공급

가치평가
시장수익
민간경쟁



■ 사회적금융, 그 평가와 한계

- 판 키우기 일정부분 성공
- 다양한 플레이어 참여확대
- 그럼에도, 정부주도성은..
- 더 모으기 > 잘 쓰기
- 양극화의 치우침 여전해..

공급



- SE 생태계 안착에 큰 기여
- 파편적 전달체계 나름 정리
- 기존방식/부처관성에 종속
- 역부족의 다양성 한계 많아
- 미스매칭: 가치평가/육구지점

전달



- 양적성장은 누구나 인정
- 인식개선과 관심도 고조
- 창업, 그후의 지속가능성은?
- 필요한 건 돈? Or 경쟁력?
- SE만의 잔칫상? 배제? 와상?

수요



사회적금융은 능력과 장점을 강화할 때다!

외부와 협력하고 경쟁해야 자생력은 생겨난다!

사회적경제, 그 다음의 큰그림을 그리자!

■ 사회적금융의 한계극복(제도개선)과 기대효과

전달체계/중개기관: 중앙에서 현장으로 -> 가치실현 Up

- 양적성장+질적성장: 제도개선(법률개정), 능력강화, 외부협업, 성장지원, 현장발굴
- 맞춤형체계: 요구/특성별 매칭시스템(가치평가). 단순공급->후속관리, 분배자->협력자

공급방식 -> 생존에서 성장으로 -> 미스매칭 Down

- 채널다양화(GP): 민간참여, 공기업자본, ESG트렌드, 범용적 매칭채널, 혼합금융
- 방식다양화(LP): 저금리발 개인참여, 중위험/중수익, 向투자, 다종상품, 눈높이

수요관리-> 선의에서 경쟁으로 -> 성장기반 Up

- 지역중심성: =현장중심, 로컬리즘, 격차심화, 지역소멸, PPP방식, 지속가능 후속관리
- 가치경쟁성: 금융주도 경쟁력 유도, 설득적인 SV증명, 돈 버는 사경조성, 자생환경



사회적금융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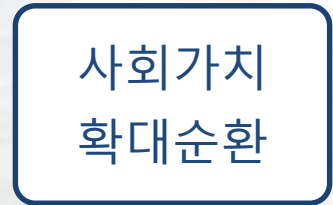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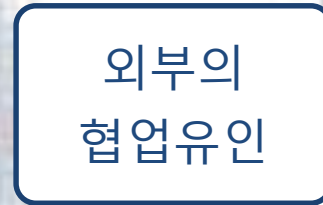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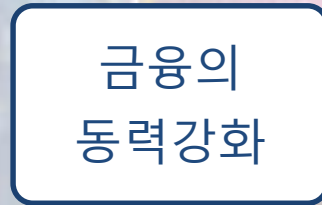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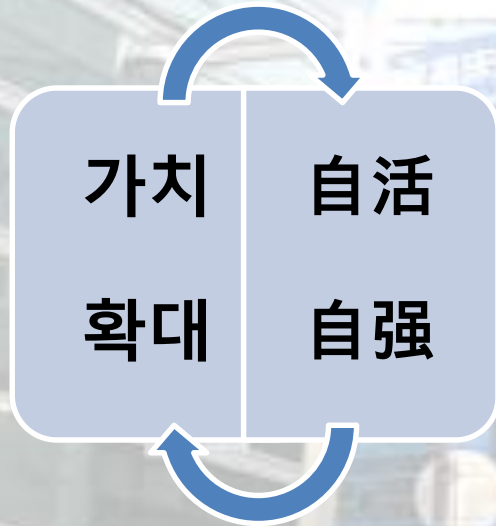
- 특별함을 넘어 일반화로: 脫지원성, 向경쟁력, 새로운 BM화, 내수버팀목
- 사경 후의 New Normal: 새로운 사회규범+새로운 작동원리->인간회복

■ 사회적금융의 범위와 기대효과:지역활성화 사례중심



■ 사회적금융이 달아야 할 곳은?

사회적금융은 제도금융과 왜 다른가?
금융이 잃어버린 사회성은 어디에?
금융은 수단일 뿐 지향은 무엇인가?



A busy city street scene with tall buildings and many people walking. The image is slightly faded and has a white background overlay. The text is centered on the image.

감사합니다

(change4dre@hanyang.ac.kr)

2021

2021.
01.12 (화) 13:30~
16:00

2021.
01.21 (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효과 검토

이동훈, 법무법인 더함 파트너 변호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효과

2021. 1. 21.

법무법인 더함
(사회적경제/공공정책법센터)

파트너변호사 이동훈

-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현황
- 2 주요 내용별 기대효과 및 한계
- 3 종합의견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현황

■ 제21대 국회 제안 현황

제안일자	의안명	제안자	조문수
2020. 11. 06.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양경숙 의원 등 10인	제47조까지
2020. 11. 05.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 의원 등 10인	제30조까지
2020. 10. 26.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김영배 의원 등 21인	제40조까지
2020. 07.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강병원 의원 등 14인	제35조까지
2020. 07. 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등 15인	제47조까지

■ 제19대, 제20대 국회 제안 경과

제안일자	의안명	제안자
2019. 03. 06.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
2016. 10. 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유승민 의원 등 15인
2016. 08. 17.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등 27인
2014. 11. 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박원석 의원 등 10인
2014. 10. 13.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신계륜 의원 등 65인
2014. 04.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유승민 의원 등 67인

2. 주요 내용별 기대효과 및 한계

■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편제

- 사회문제 개선 & 사회적가치 증진(또는 달성) 등을 위한 금융활동
 -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사회적경제조직 외 법인·단체 등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활동 포함)
 - 방법 : 투자·용자·보증·출연, 보조금의 집행 등

구분	내용
양경숙 의원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u>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용자·보증등을</u>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장혜영 의원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u>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용자·보증 등의 금융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 외의 법인·단체 등에 대한</u> 사회적가치의 달성을 위한 금융활동
김영배 의원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참여자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하며, <u>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투자·용자·보증·출연, 보조금의 집행 등을 포함</u>
강병원 의원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u>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용자·보증 등을</u>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윤호중 의원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u>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용자·보증등을</u>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 장 제목

윤호중 의원 등	강병원 의원 등	김영배 의원 등	장혜영 의원 등	양경숙 의원 등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4장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제4장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제3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2. 주요 내용별 기대효과 및 한계

■ ‘사회적금융’에 관한 제도 정비

윤호중 의원 등	강병원 의원 등	김영배 의원 등	장혜영 의원 등	양경숙 의원 등
클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공공,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 및 사회적경제조직 신용평가 방법 개발과 공시제도 도입	클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공시제도 등 도입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공시제도 등 도입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공시제도 등 도입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금융 상품 개발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 공시제도 등 도입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신협 포함 상호금융,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 조직 투자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여신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상품 개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사회적 경제 관련 공제기금, 사회적 경제 민·관 협력 도매기금 출연 등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지원 활성화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과 연계된 금융제도의 정비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 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클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 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금융제도의 정비		그 밖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금융제도의 정비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금융제도의 정비

2. 주요 내용별 기대효과 및 한계

■ ‘사회적금융기관’에 관한 주요 내용

윤호중 의원 등	강병원 의원 등	김영배 의원 등	양경숙 의원 등
<p>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u>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u>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u>지정·육성</u></p>	<p>「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u>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u></p>	<p>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u>협동조합 금융, 사회적 경제 기금, 비영리 민간재단</u> 등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u>지정·육성</u></p>	<p>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u>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u>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u>지정·육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 사회적 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 사회적 경제 분야 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 사회적 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가능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등 결성·설정·설립 		

2. 주요 내용별 기대효과 및 한계

■ ‘기금’에 관한 주요 내용

윤호중 의원 등	김영배 의원 등	장혜영 의원 등	양경숙 의원 등
<p>사회적경제발전기금 & 민간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기금 또는 금융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입금 	<p>사회적 경제 발전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존의 정책기금 또는 금융 •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 및 투자금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입금 	<p>사회적경제발전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출연금 •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입금 	<p>사회적경제발전기금 & 민간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기금 또는 금융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 사회 금융기관 역량강화사업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투자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발전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치 포함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 사업 •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융자, 보증 등 지원사업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보육 및 투자, 융자, 출연 등의 지원사업 •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연구 •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지원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 융자·보증 •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지역기금에 대한 연계 지원 •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의 지원 • 기타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 사회 금융기관 역량강화사업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 기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업 • 기타 사업

3. 종합의견

■ 제한적 효과 예상

- 왜 입법이 필요한가? 기본법 형식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과연 공공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 부작용은 없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제언

-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
- 기존 개별법을 분석해서 사회적금융의 작동 원리 법제화 (일반법/개별법/기존법 중심 입법안 마련 필요)
- 하위 법령 준비 등 내용 구체화
- 입법 외의 노력 (ex. 사회적 가치 개념 및 평가·측정 방법의 구체화,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 구체화 등)

감사합니다

2021

2021.
01.12(화)

13:30~
16:00

2021.
01.21(목)

14:00~
16:00

사회적 금융

비전 토론회

사회적 금융 포럼